


# 리아호나



**제8회 국제 미술  
대회 작품, 30쪽**

교육과 경력 그리고 주님의 계획, 40쪽

원숭이 닳을 조심하십시오, 48쪽

경건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 60쪽



강가에서 행사된 신앙(출애굽기 2:3~4), 앤 마리 오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출애굽기  
2:3~4)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도덕적 용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8 **방문 교육 메시지: 개인 경전 공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시키십시오**

**특집 기사**

- 16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케빈 디 캐스퍼  
불타는 배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었다.

**표지**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기, 게이린 리베이라. 뒤: 변함 없는 진로, 존 힐라맨 샬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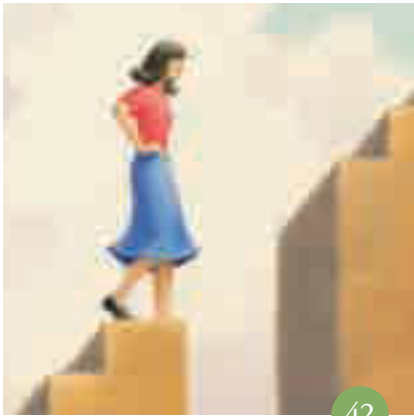


- 18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함**  
혼란한 시대에도 교회는 성장하고, 우리는 화평을 느낄 수 있다.
- 30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기억하며: 제8회 국제 미술대회**  
헤더 엘 스타크  
44개국 미술가들이 색채와 형상으로 “간증 모임”을 만들어낸다.

**교회 본부 기사**

- 9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복음의 빛을 인식하며**  
율리아 파레스
- 10 **작고 단순한 일**
- 13 **교회 봉사: 받아들일 수 있는 봉사**  
데이비드 이 러수어 장로
- 14 **우리의 믿음: 성신은 진리를 증거합니다**
- 26 **복음 고전: 금식의 법**  
로버트 엘 심슨 장로
- 36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며**  
안토니오 펠루소






42

40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육신의 팔에 기대지 마십시오  
러셀 엠 넬슨 장로

42 내 삶의 복음: 일이 잘못되어 가는 듯한 때  
린 시-치아

43 왜 금식 헌금을 내야 할까?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44 나에게 필요한

46 나는 어떻게 아는가: 옳은 교회를 찾을  
로베르토 핀에이로 로차

48 쿨부카에 걸려 들다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티스 장로  
사탄의 텃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끝은 파멸뿐입니다.

52 포스터: 올바른 행로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53 우리를 공간

54 수비  
프리드리크 라본 거더먼트슨  
가장 맹렬한 공격은 경기장 바깥쪽에서 쏟아졌다.

56 골목대장 호감 사기  
더글러스 엠 브라운  
새로 전학 온 나는 이 골목대장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 일로 내 삶은 힘들어졌다.



54



62

58 어떻게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59 선지자에 대한 간증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장로  
처음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60 경건에 대한 교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어린 시절에 몬슨 회장님은 초등학교가 경건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62 템플 스퀘어 방문: 본부 초등학교 회장을 만나서  
애나 컬프

64 우리들 이야기

66 신권 축복을 받은 린지  
머너 호이트  
수술을 앞둔 린지는 어떻게 평안을 느낄 수 있을까요?

68 함께 나누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샌드라 태너와 크리스티나 프랜코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2010년 3월호, 제47권, 제3호  
리아호나 09283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입니다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머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앨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벤틀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엘 앤더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콘디  
**고문:** 카스 케이 힐버그, 요시히코 가쿠미, 폴 비 파이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켄 포터 곤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매켈,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테카고, 주디스 엠 팔라, 조슈아 제이 페리, 체드 이 페라시,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돈 엘 샬, 세넷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렐  
**선임 비서:** 로렐 듀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라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터마커,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카빈, 스킵트 엠 무이, 지니 제이 날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렌디 제이 벤슨

통 관: 제524호, 제47권, 제3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0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 동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g](http://www.lds.org)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oc@hanmail.net](mailto:koreado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g](http://www.lds.org)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5,000원,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스웨덴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말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터미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mailto: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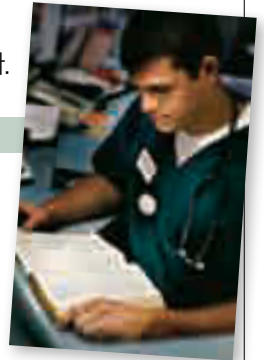
March 2010 Vol. 34 No. 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인터넷에 실린 추가 기사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



제8회 국제 미술 대회 출품작 중 몇 작품에 관한 기사가 30~35쪽에 실려 있다. [www.ArtExhibit.Lds.org](http://www.ArtExhibit.Lds.org)를 방문하면 모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청년 성인

**"육신의 팔에 기대지 마십시오"**(40쪽 참조)는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이 2009년 4월에 전한 졸업식 말씀에 기초한다. 이 말씀의 전문을 영어로 읽으려면 <http://speeches.byu.edu>를 방문한다.

## 청소년



**여러분은 어떤 친구인가?**

[www.liahona.Lds.org](http://www.liahona.Lds.org)에서 대화식 온라인 퀴즈를 풀면서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아본다.

## 어린이



**"미구엘의 새로운 초등학교"**(70쪽)

이야기를 바탕으로 활동을 해 본다.  
[www.liahona.Lds.org](http://www.liahona.Lds.org)에서 두 초등학교 교실의 차이점을 모두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 여러분의 언어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교회 자료를 찾아보려면 [www.languages.Lds.org](http://www.languages.Lds.org)를 방문한다.



사진: 심화, 크레이그 데이비드



하나님께서서는 조셉 스미스가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 넘치는 도움을 주십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도덕적 용기

**필**멸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목적 중 하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그분께 증명해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의 세계에서 그 시험에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무리 중 삼분의 일은 실패할 위험이 있다면서 필멸의 존재로 시험을 받자는 제의에 반대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이 축복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영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선택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지를 가늠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신을

동반하여 경전을 읽을 때 경전은 든든한 안내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분들을 볼 수도 있었고, 우리에게 가르침과 용기를 주는 그분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기억에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유혹과 신체 약점에 얽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려면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성신의 영향력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하며, 분명하고 자신 있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 다시 그러한 관계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용감하게 살아가도록 큰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 덕분에 죄는 침례의 물 속에서 씻겨질 수 있습니다. 신앙과

거룩한 신권이 있어 우리는 용감하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신권 의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봉사하고 악한 영향력에 맞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봉사하도록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은 약속도 주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 청소년

###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사우나 스쿠비

**니** 파이는 정확히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바를 표현했다. “내 영혼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 구원의 반석이신 주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나는 늘 니파이처럼 온전히 순종하고 충실하며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선량함에 관해서는 니파이를 최고의 본보기로 여겼다. 니파이와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니파이에게 있는 미덕 중 한 부분이라도 서서히 지닐 수 있기를 바랐다.

어느 날 나는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혀서 약간의 위기의식마저 느끼게 되었다. 큰 뜻을 품고 목표도 많았지만 그 어디에도 미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내 심정을 털어 놓았다. 아버지는 곧바로 일어서서더니 책장으로 걸어갔다. 물문경을 꺼내신 아버지는 말없이 니파이후서 4장을 펼쳐 17절을 읽기 시작하셨다.

“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강력한 구절을 듣자 몸에 전류가 흐르듯 소름이 돋았다.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나에게 모범이자 영웅인 니파이가 어떻게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가 곤고한 자라면,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아버지께서 28절의 “깨어나라, 나의 영혼이여! 더 이상 죄 중에 처지지 말지어다”라는 부분을 읽어 주시자 다시 한 번 온 몸에 전류가 흘렀다. 내 마음속에

거기에 나도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봉사를 하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언급하시며 확고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구덩이어나 살인자들의 손에 던져지고 사형이 네게 선고될지라도, 네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몰아치는 큰 파도가 너에 대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맹렬한 바람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이 흑암을 몰아오고 모든 원소가 힘을 합쳐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네가 그보다 크냐?”(교리와 성약 122:7~8)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 넘치는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추구하는 영생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

#### 본 메시지를 활용한 가르침 제안

“**최**고의 교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종종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심으로써 자신이 가르친 원리들을 깊이 생각하여 생활에 적용하도록 독려하셨다. …… 그분의 질문은 생각을 하게 하고, 자신을 분석하게 하며, 결심을 하게 했다.”(교서,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68쪽) 사람들이 각자 이 메시지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활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어떻게 도와 주셨습니까?” 질문에 답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 어린이

### 용기를 주는 선물

**아**이어링 회장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몇 가지 선물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아래에 있는 성구들을 읽고 빈 칸에 알맞은 선물이 무엇인지 이름을 적어 보세요. 그런 다음, 선물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짝지어 보세요. 그리고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었는지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1. 사도행전 22:16 \_\_\_\_\_
2. 니파이후서 4:15 \_\_\_\_\_
3. 교리와 성약 59:8~9 \_\_\_\_\_
4. 니파이후서 32:5; 요한복음 14:26~27 \_\_\_\_\_
5. 데살로니가전서 5:17 \_\_\_\_\_

드리운 먹구름이 흩어지고, 맑게 개어 탁 트인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밝은 햇빛과 따스함이 쏟아지는 듯했다. 그 구절이 내 영혼을 어떻게 깨우쳤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많은 희망과 영감과 기쁨으로 나를 벅차게 한 성구는 거의 없었다.

30절에서 니파이는 정확히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바를 좀 더 감동적인 말로 표현했다. “내 영혼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 구원의 반석이신 주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나는 주님의 친절한 자비와 사랑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평안을 얻었다.

물론경을 덮으면서 아버지는 이 구절들이 종종 니파이의 시편이라 불린다고 설명해 주셨다. 그러고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실은 완전하지 못하며,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자만에 빠져서 위대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사려 깊게 말씀해 주셨다.

니파이는 정확히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바를 표현했다. “내 영혼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 구원의 반석이신 주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니파이처럼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내 약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니파이와 더욱 가까워졌다. 니파이가 위대한 이유는 순종적이고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기꺼이 자신의 결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나는 니파이가 한 이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긴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처음 읽었을 때와 같은 전율과 영감을 경험한다. 그 구절들은 내게 외친다. 내가 바로 상상 이상으로 더 많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점을 말이다. 그리고 나는 충실하게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무수한 축복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안다.



## 개인 경전 공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시키십시오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축복이 될 만한 성구와  
인용문, 또는 다른  
원리를 가르친다. 교리에

대해 간증한다.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결혼 초에 …… 저는 몰몬경이나 짧은  
교회 역사 책을 읽은 와드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초대한 점심식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경전 읽기를  
건성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적 쉽고  
시간도 적게 걸리는 짧은 역사책을 읽은  
것으로 오찬에 참석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역사책도 좋지만  
몰몬경을 읽어야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성신은 제게 경전 읽기  
습관을 바꾸도록 속삭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몰몬경을 읽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 경전을 매일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며,  
제가 그분들처럼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

모든 여성은 가정에서 복음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으며, 교회  
지도자와 교사로서 복음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하시고 이 생과 영원한 세상에서 맡게  
될 책임을 준비하기 위해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sup>1</sup>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경전 공부는 우리와 우리 가족의  
간증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옳은 것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따르도록 촉구하는 음성에 둘러싸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굳건한 기초와  
진리에 대한 간증, 의롭게 살겠다는 결심이  
없다면 그들은 쉽게 그런 영향력에 흔들릴  
것입니다. 그들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sup>2</sup>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방문 교육을 위한 제언

**방**문하는 동안 경전을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고 영적 생각을  
나눈다. 경전 공부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강해졌는지 간증한다.  
방문하는 자매에게 경전 공부로 그녀의  
가정과 가족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한다.

### 개인적인 준비

요한복음 5:39  
디모데후서 3:14~17  
니파이후서 9:50~51; 31:20;  
32:3~5  
교리와 성약 138:1~11

“우리는 자매들이 …… 경전에  
해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복리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영원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sup>3</sup>

“경전을 읽는 자매 덕분에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젊은 연로하든, 미망인이든  
가족과 함께 생활하든 상관없습니다. ……  
경전에 해박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  
내리지 말고 들어 올려주십시오.”<sup>4</sup> ■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

### 주

1. 줄리 비 벡, “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7~109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18쪽.
3.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여성의 특권과 책임”, 성도의 벗,  
1979년 4월호, 146~147쪽.
4. 스펜서 더블류 김볼, “The Role of Righteous Women”,  
Ensign, 1979년 11월호, 102쪽.

# 복음의 빛을 인식하며

올리아 파레스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 삶의 목표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삶의 방향을 잃고 있었던 것 같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걸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다른 19세 아이들처럼 나도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꿈꾸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했다. 특히 계속 행복한 삶을 일구어가는 면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그분은 내가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그분과 그분의 아들을 내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점을 아셨다. 스무 번째 생일을 앞두고, 선교사들이 우리 가족에게 계명에 따라 살으로써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을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기도를 드렸고, 내 삶의 목표를 이루려면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침례를 받은 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려는 결심이 나에게 왜 그렇게 소중한지 이해하지 못한 일부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그렇더라도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내가 이 시련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스물한 살이 되자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간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계명에 따라 생활하려 한 내 결심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나누고 싶은 소망이 커졌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되었다.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은 정말로 대단했다.

그 이후로 내 삶은 축복으로 가득했다. 8년 전에는 성전에 가서 내 목표였던 결혼의 꿈을 이루었다. 게다가 단지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남편에게 영원히 인봉되었다.

시간이 몇 년 더 지나면서 어머니가 되고자 했던 내 목표도 성취되었다. 나는 훌륭한 세 아들을 키우는 축복을 받았다.

얼마 전에 나는 가족과 함께 성전 공개 모임에 참석했다. 성전을 거닐던 중 네 살 난 아들이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엄마하고 아빠가 성전에서 결혼하셨으니까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거죠.”

내 삶에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진다. 참으로 큰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기에 “계속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분들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한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도움을 주시고 싶어하신다는 점을 나는 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루만지셨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까? 구주의 성역과 사명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 이야기나 영적 생각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속죄나 은혜, 치유, 희망, 회개와 관련된 주제로, 500자 내에서 원고를 쓰고 제목은 “We Talk of Christ”라고 써서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이 1978년에 헌납한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은 남미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이다. 성전 건립에 필요한 기금 중 일부는 지역 회원들이 낸 현금으로 충당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돈 대신 결혼 반지나 팔찌, 메달과 그 외 귀중품들을 기부했다.

성전은 현대식 건물에 첨탑 하나를 올려 지어졌다. 기초는 견고해서 13층 높이의 건물을 지탱하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지진에도 끄떡없을 정도다.

외벽은 강화 콘크리트에 석영과 대리석 골재로 구성된 주형 인조석으로 덮여 있다. 외벽을 덮은 사각형 돌판 3,000여 개는 각기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데, 종류를 분류해보면 400가지나 된다. 판들은 채 1밀리미터도 안 되는 간격으로 붙어서 성전 벽면을 딱 들어맞게 채운다.

상파울루 성전은 2004년에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거쳤다. 아무 것도 없던 첨탑 위에 모로나이 천사상이 올려진 것도 바로 이때이다.



### 연차 대회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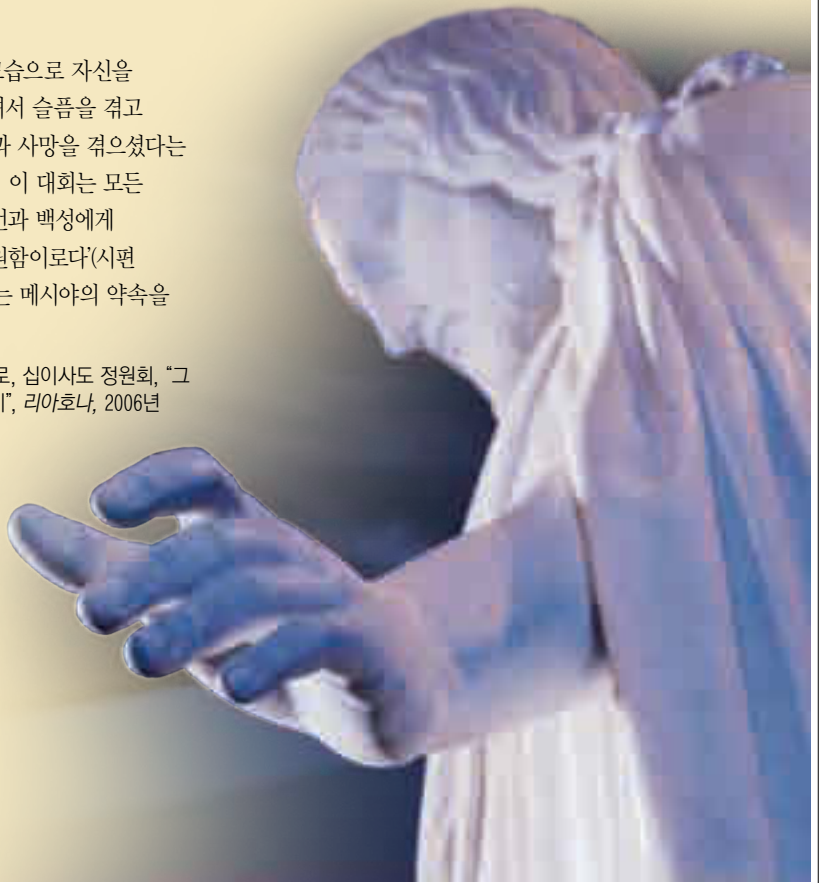


**“교**회의 연차 대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다시 지상에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 지상에 오셔서 슬픔을 겪고 배척 당하며, 실망과 사망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이 대회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시편 136:1)라는 사랑하는 메시야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 땅에 다시 선지자들이”,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106쪽.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실 것이며, 다시 [유대의 성도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사도행전 1:11)라고 한 옛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이시자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년이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언하며 알리는 대회입니다. [연차 대회[는] …… 우리 삶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가 고난의 운명에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해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이사야 53:5) 그분이



## 초기 시대의 상호부조회

**18** 42년 일리노이 주 나부에 있던 몇몇 여성들은 성전 봉사자들을 위해 옷을 만드는 바느질 단체를 조직했다. 하지만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권고했듯이 상호부조회의 책임은 단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다.<sup>1)</sup> 상호부조회는 이렇게 창립되었다.

조셉 스미스는 1842년 3월 17일에 상호부조회를 공식적으로 조직했다.



초대 회장으로는 조셉의 아내 에머가 부름을 받았다.

자매들은 곧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다. 이주자 등 나부에 새로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음식과 거주지, 그리고 옷가지들이 필요했다. 또한 당시에는 육체적 고통과 질병을 겪고 가족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다.

1842년 여름이 되자 상호부조회 조직은 너무나 커져서 나부에 있는 어떤

건물도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자매들은 성전 대지 근처 숲에서 모임을 했다. 1842년과 1843년 사이 겨울 동안 상호부조회 모임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방문 교육의 전신인 “생필품 위원회” 자매들은 여전히 방문을 계속 했다.

주  
1. 조셉 스미스, *History of the Church*, 5:25.

## 제임스 이 탈매지 (1862~1933)



**제**임스 에드워드 탈매지가 열세 살 되던 해에 그의 가족은 고국인 영국을 떠나 유타 주 프로보에 정착했다. 지식을 갈구하던 영특한 제임스는 열일곱 살 무렵에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아카데미에서 시간제 교직원으로 일했다. 이어 펜실베이니아 주에

소재한 리하이 대학교와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화학과 지질학을 공부했다. 제임스 탈매지는 과학계에서 저명한 여러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유명인사와 출판사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관계들은 그가 후기 성도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1888년에 제임스 탈매지는 메리 메이 부스와 결혼하였고, 슬하에 여덟 자녀를 두었다. 1894년부터 1897년까지 그는



아래: 1921년 십이사도 정원회.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탈매지 장로임.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데저렛 대학교(현재의 유타 대학교) 총장으로 일했는데, 그때 제임스는 당시에 인기를 끌던 신형 체인식 자전거를 구입해서 종종 타고 다녔다. 그 무렵 그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한 시간이나 늦게 집에 온 적이 있다. 집에 들어온 제임스는 온 몸에 멍이 들고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여기저기가 흠투성이였다. 당시 제임스가 살던 집 근처에는 도랑 위에 널판지 하나를 걸쳐 만든 다리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다리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서 건넜지만, 그날만큼은 자전거를 타고 건너보리라 하고 다짐했던 것이다. 그 후에도 그는 수도 없이 도랑으로 곤두박질쳤지만, 결국은 요령을 터득했다.

탈매지 장로는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한 교사였다. 탈매지 장로가 전한 말씀과 공과 내용 일부는 *신앙개조* 등 그가 저술한 책들의 기초가 되었다. 탈매지 장로는 그가 집필한 책들로 유명해졌다. 1911년,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 받기에 앞서 제일회장단은 탈매지 장로에게 구주의 삶과 성역에 대한 책을 집필하도록 의뢰했다.

이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 방이 따로 마련되어 탈매지 장로는 그곳에서 집필에 전념했다. 700쪽에 이르는 그의 저서 *예수 그리스도는 1915년에 출판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재발행되었다.* ■





데이비드 이 러수어 장로  
북미 남서 지역 칠십인

# 받아들일 수 있는 봉사

**필** 리핀의 한 작은 교실로 한 형제님이 들어왔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접견을 하러 온 것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연로한 회원들도 그분을 타타이(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말하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지 묻자, 그분은 온화하게 웃으며 “예. 그렇습니다.” 하고 사려 깊은 어투로 대답했습니다.

접견을 마치면서 저는 그분에게 혹시 신권에 성임 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신권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가 하나 밖에 없어요. 신권을 받기에 썩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서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신권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 대답을 묵묵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없는 훌륭한 신권 소유자들을 수없이 봐 왔습니다. 하지만 형제님은 아름답고 숱이 많은 검은 머리카락이 있으시네요. 귀가 하나밖에 없거나 눈이 한 쪽밖에 없는 신권 소유자도 있는데, 형제님은 눈도 귀도 두 개씩 다 있으시네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암에 걸려 한 쪽 팔을 잃은 친구 이야기도 들려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집에서 기도를 드리며 제 아내와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을 때 저는 그가 주님의 훌륭한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타타이에게 그 친구가 죽어가는 어린 소녀를 축복하기 위해 어떻게 아이의 머리 위에 한 손을 얹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함**  
부름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받아들이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로 봉사하신 매리온 지 롬니(1896~1988) 회장님은 부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부름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 영생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십시오.
- 부름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 부름 받은 직분에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매리온 지 롬니, “Magnifying One’s Calling in the Priesthood”, *Ensign*, 1973년 7월호, 89~90쪽.

권능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이 필리핀 형제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리는 봉사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대한 결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름이 올 때 부족하다고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성도들이 바치는 가장 겸손한 헌물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최선의 노력을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



## 주님의 심부름

“여러분 중에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거나 부름을  
받아들이겠다고

확실하게 대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일이 여러분이나 저의 일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주님의 일이며, 우리가 그분의 심부름을 할 때에는 마땅히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Duty Calls”, *Ensign*, 1996년 5월호, 44쪽.

# 성신은 진리를 증거합니다

**성** 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십니다. 성신은 살과 뼈로 된 몸이 없으며, 다만 영으로 된 인격체이십니다.(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성신은 종종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혹은 보혜사로 언급됩니다.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일하십니다.<sup>1</sup>

영으로 된 인격체인 성신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머물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동시에 여러 곳에 미칠 수 있습니다.<sup>2</sup>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살이 옷감으로 짜여지듯이 진리는 성신을 통해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터득한 진리는 잊혀지지 않습니다.”<sup>3</sup>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신을 받음으로써 성결하게 됩니다. 성결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에서 자유로워져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모세서 6:59~60 참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성결하게 됩니다.(힐라맨서 3:35 참조)

1.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십니다.(니파이후서 31:18)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간증은 오직 성신의 권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sup>4</sup>



6. 우리는 성신을 통해 영의 은사를 축복받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고린도전서 12:1~12; 모로나이서 10:8~18; 교리와 성약 46:11~33 참조)

“나 니파이가 부친이 …… 성신의 권능으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들었으니, 이 권능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으신 것이요 …… 나 니파이는 하나님께서 ……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성신의 권능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보고 듣고 알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였느니라.”(니파이전서 10:17)



사진 상하: 크레이그 데이먼드, 데이비드 스토킨, 윌슨 시 앤더슨, 데릭 이스라엘스, 매튜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니파이 성화, 제타 볼슨, 아담과 이브, 루니 볼라크

2. 성신은 진리를 증거하며, 우리는 그분의 권능으로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됩니다.(모로나이서 10:5)



3. 성신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주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해 배운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해 줍니다.(요한복음 14:26 참조)



4. 성신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줄 것”입니다.(니파이후서 32:5) 성신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인도해 주며 육체적인 위험과 영적인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5.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알고자 열망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때 성신은 더 큰 빛과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sup>5</sup>



7. 성신은 보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소망과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모로나이서 8:26)



8. 아담은 지상에서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모세서 6:64~66 참조)



9. 회개하고, 침례와 확인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 성결하게 됩니다.(모사이야서 4:1~3; 5:1~6 참조) ■

주

1. 신앙에 충실함(2004년), 81~82쪽;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년) 90~91쪽 참조.
2. 복음 원리(2009년), 32쪽 참조.
3. 조셉 필딩 스미스, *Doctrines of Salvation*, 브루스 알 맥퉁키 편 제3권(1954~1956), 1:48.
4. 고린도전서 12:3; 신앙에 충실함, 81쪽 참조.
5. 이노스서 1:3;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8쪽 참조.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네 흠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흠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무궁토록 네게로 흘러오리라.”(교리와 성약 121:46)

# 19

94년 6월 7일, 필리핀 동부 사마르에서 지역 대회를 마치고 동료 선교사 다섯 명과 함께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밤공기는 눅눅하고 끈적끈적했다. 여행 가방을 2층 간이 침대에 집어넣고 나서 우리 중 네 명은 열기를 식히려 앞쪽 갑판으로 나갔다. 던포드 장로와 베어머데스 장로는 선실에 남아 잠이 들었다.

나는 킨 장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 우측에서 폭죽 소리 같은 폭발음이 들렸다. 기계실에서 일어난 불길이가 배 뒤쪽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연기가 통로를 가득 메웠고 배는 정전이 되었다. 승객들은 어둠 속에서 겁에 질려버렸다.

갑판에 있던 우리 네 사람은 한 자리에

모여서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를 했다. 그런 후 발렌타인 장로는 곧바로 구명조끼를 찾으려 배 안쪽으로 급히 들어갔다. 발렌타인 장로는 선실에서 던포드 장로를 만났는데, 던포드 장로는 그에게 구명조끼 두 개를 건네주고 베어머데스 장로를 찾으려 갔다. 발렌타인 장로는 어둠 속에서 구명조끼 두 개를 더 찾았다. 혼돈 속에서도 그는 기적같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통로를 빠져 나와 20초 만에 갑판으로 돌아왔다. 이때 뱃머리는 승객들로 혼잡했다. 불길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기에 뛰어내리는 것 외에는 선택이 없었다. 우리는 구명조끼를 입고 짧게 기도를 드린 후 바다로 몸을 던졌다. 겁에 질린 무리들이 발렌타인 장로를 밀쳤지만 다행히 그는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고 3미터 아래 물로 떨어졌다.

불꽃으로 배 주변은 환했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우리 네 명은 배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에 다시 모였다. 사방에는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화염에 휩싸인 3층짜리 배에서 벗어나려고 멀리 헤엄쳐 갔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던포드 장로와 베어머데스 장로를 찾으려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발렌타인 장로는 그 두 사람이 구명조끼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지만 우리는 갑판에서 그들을 보지 못했다.

불꽃이 사그라지자 사방은 칠흑같이 캄캄해졌다. 파도가 심해서 구명조끼를 입고서도 물에 떠 있기가 힘들었다. 우리는

##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케빈 디 캐스퍼



다시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곧이어 우리는 두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한 노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돌아가면서 모두가 물에 떠 있도록 도와 주었다. 그러다 작은 뗏목 하나를 발견했고 그들을 뗏목에 태웠다. 다른 사람들도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물 속에 그대로 남기로 했다.

30분이 지나자 바람이 심해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파도는 더욱 거세게 일었다. 다른 두 장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고 폭풍우 때문에 더 이상 구조를 할 수도 없었다. 킨 장로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다른 두 장로가 무사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폭풍우는 사라졌다.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심을 느꼈다. 곧이어 던포드 장로가 킨 장로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소리를 치며 그들이 있는 쪽으로 헤엄쳐 갔다. 던포드 장로와 베어머데스 장로는 배 창문으로 기어 나와 뛰어내렸던 것이다. 그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두 여인을 등에 업고 있었다.

얼마간 우리는 그렇게 물 위에 떠 있었다. 시간이 흐른 후, 구이우안 해안 지역을 출발하는 고기잡이 배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다. 오래지 않아 배 한 척이 우리를 발견했지만 배 안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해서 두 여성만 배에 타고 우리는 계속 물속에서 기다렸다.

그렇게 두 시간을 더 보내고 나서야 다른 배 한 척이 우리를 발견해냈다. 그 배는 우리를 해변으로 실어다 주었다. 6월

8일 이른 아침, 드디어 우리는 구이우안에 있는 선교사 숙소에 도착했다. 그날은 나의 스물한 번째 생일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바다 속에 남아 있을 사람들이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나는 이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 호된 시련 내내 우리가 받은 안도감도 잊지 않기를 소망한다. 정말로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이 일을 겪으면서 나는 주님께서 늘 그분의 자녀와 함께하시며, 시련을 겪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과 평안을 주신다는 간증이 더 확고해졌다. ■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에  
대해 경고하셔서  
의로운 사람들이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는  
앞으로 닥칠  
기근과 대비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물론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도를  
권고해 주신다.

# 주님의 손안에서 안전함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그 성스럽고  
조용한 다락방에서 구주께서는 사도들이 앞으로  
박해와 슬픔도 겪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교리와 성약 서문에서 주님은 “평화가 땅에서  
거두어지고 악마가 자신의 영도를 다스릴  
힘을 가지게 될 [것]”(교리와 성약 1:35)이라고  
경고하셨다. 하지만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도 주셨다. “주도 자기 성도를 다스릴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다스릴  
것이며”(교리와 성약 1:36)

마지막 날에 임할 동요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은

낙담’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45:26; 88:91)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평화의 메시지이며 따라서 그  
메시지는 세상에 평화를 전해준다. 또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  
평화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기운을 내라”는  
격려는 심적으로 낙담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모든 경륜의 시대에는 동요와 전쟁, 테러와  
빈곤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악인에게는 경고하시고  
의인에게는 확신을 주시며 준비시키셨다. 이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조셉  
스미스 이후로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선지자와  
사도들, 선견자들과 계시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우리를 인도하고 권고한다. 그들은 평화와 희망에  
찬 구주의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품도록,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도록  
우리 가정과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선 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은 ……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천상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이 시대를 찬양하고 기록을 남기며 예언을 했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기의 영광을 가져오기 위해 선택하신 은혜 받은 백성들입니다.”

조셉 스미스 회장, *History of the Church*, 4:609~610.

# 교회 및 세계의 주요 사건

다음 연대표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세상이 큰 동요에 휩싸이거나 심지어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당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 회원 수가 증가하고, 스테이크와 성전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가며, 주님은 계속 그분의 선택된 종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이 한 사람에게 또는 많은 무리에게 임하더라도 우리는 마음 속에서 고동 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두려워 말라. 어린아이들이, 이는 너희가 나의 것임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며,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50:41)



## 교회의 주요 사건

1830~1839년

몰몬경(왼쪽) 출판

교회 조직

커틀랜드 성전(아래쪽) 헌납

첫 선교부인 영국 선교부 조직

첫 계시들이 계명의 책(왼쪽 아래)으로 출판되었다가 이후에 교리와 성약으로 출판

교회 회원 수  
스테이크 수  
(해당 시기 마지막 해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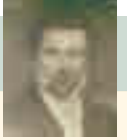
16,460명  
3개

## 세계의 주요 사건

1830~1839년

프랑스 혁명

영국과 중국 간의 첫 아편 전쟁 발발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억압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도리어 강화되고 그들은 약화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수효를 줄이려 할 때마다 우리는 더 늘어납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과 덕을 무력화시키려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신앙과 권능을 더 강화시키십니다. 악마가 파멸시키려 할수록 우리의 의로움과 권능은 하나님 안에서 빛으로 더욱 강성해집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회장, 265쪽

	1840~1849년	1850~1859년	1860~1869년
<b>교회의 주요 사건</b> 	 <p>신앙개조 처음으로 출판</p> <p>상호부조회 조직(왼쪽)</p> <p>조셉 스미스 순교</p> <p>성도들 서부로 이동</p> <p>브리검 영 교회 회장으로 지지</p> <p>첫 주일학교 조직</p>	<p>솔트레이크 성전 기공</p> <p>미합중국 군대가 유타에서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진압하기 위해 행군해 옴</p> <p>첫 비영어 몰몬경 덴마크에서 출판(아래)</p> 	<p>갓 완공된 솔트레이크 태버넌클(아래)에서 첫 대회</p> <p>대륙 횡단 철도 유타에서 완공</p> <p>청녀를 위한 첫 교회 조직 시작</p> 
<b>교회 회원 수 스테이크 수 (해당 시기 마지막 해 수치)</b>	<p>48,160명</p> <p>1개</p>	<p>57,038명</p> <p>4개</p>	<p>88,432명</p> <p>9개</p>
<b>세계의 주요 사건</b> 	<p>1840~1849년</p> <p>미국이 멕시코에 전쟁 선포</p> <p>빈, 베니스, 베를린, 밀라노, 로마, 바르샤바 혁명</p> <p>공산당 선언 출간</p> <p>아일랜드 감자 기근</p>	<p>1850~1859년</p> <p>크림전쟁</p> <p>첫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 설치</p> 	<p>1860~1869년</p> <p>미국 남북전쟁</p> <p>스페인 혁명</p> <p>러시아 농노 해방</p> <p>오스트리아 7주 전쟁에서 패배</p>  



“조 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 그분은 손을 뻗으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육신의 팔은 그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주님의 사업에 발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 Conference Report, 1905년 10월호, 5~6쪽



“하 나님은 결코 무너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을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의 백성은 그분과 서로에게 충실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진리가 승리하리라는 사실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22쪽

### 1870~1879년

청남 MIA(상호 향상 모임)와 초등회 조직 시작

유타 주 첫 번째 성전인 세인트 조지 성전(아래) 헌납

몰몬 이주단이 애리조나 주와 콜로라도 주에 정착

영 회장 사망



128,386명  
22개

### 1880~1889년



존 테일러가 교회 회장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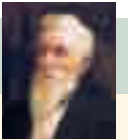
복수 결혼으로 교회 회원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음

테일러 회장 사망, 윌포드 우드렙이 교회 회장이 됨.



183,144명  
32개

### 1890~1899년



우드렙 회장이 복수결혼을 종결하는 성명서 발표 (공식 선언-1 참조)

솔트레이크 성전(아래쪽과 아래쪽 왼편) 헌납

우드렙 회장 사망, 로렌조 스노우가 교회 회장이 됨

십일조가 다시 강조됨



271,681명  
40개

### 1870~1879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파리 폭동



### 1880~1889년

아일랜드에서 테러 발생



### 1890~1899년

청일전쟁  
스페인-미국 전쟁  
남아프리카 보어 전쟁













브리검 영, 개척자, 워싱턴, 모리슨, 제곱, 모지 사건, SAMANTHA BROOKE 제공



“ 우리는 선지자들과 구주께서 직접 예언하신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 교회에서 우리는 가장 극적인 사건들 중 일부를 목격해 왔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시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지켜보았음을 증거합니다. ……

탱크나 총, 전투기나 원자 폭탄으로는 안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안전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안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속할 때 찾아옵니다.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안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성임하신 지도자들의 신권 계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 "Closing Remarks", *Ensign*, 1974년 1월호, 125쪽.

	1900~1909년	1910~1919년	1920~1929년
<b>교회의 주요 사건</b>  	 스노우 회장 사망, 조셉 에프 스미스가 교회 회장이 됨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드 스무트(왼쪽) 장로가 오랜 논의 끝에 미국 상원 의원으로 선출됨  제일회장단이 유럽 회원들에게 자국에 남아서 교회를 건설하도록 요청함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선교사들이 프랑스, 독일, 스위스, 벨기에에서 철수  예수 그리스도(아래) 출판  스미스 회장이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을 받음(교리와 성약 138편 참조)  스미스 회장 사망. 허버 제이 그랜트가 회장직 계승	십이사도 정원회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가 남아프리카를 복음 전파 지역으로 헌납  후기 성도 종교 교육원이 처음으로 설립됨  태버나클 합창단(아래)이 매주 라디오 방송을 시작함. 이 방송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  
<b>교회 회원 수 스테이크 수 (해당 시기 마지막 해 수치)</b>  	377,279명 60개	 507,961명 79개	 663,652명 104개
<b>세계의 주요 사건</b>   	1900~1909년 러일전쟁  1905년 러시아 혁명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에 일어난 지진으로 15만 명 사망	1910~1919년 터키-이탈리아 전쟁  중국 혁명  발칸전쟁  제1차 세계대전  1917년 러시아 혁명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백만 명 사망	1920~1929년 스탈린이 소련 점거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세력을 떨치기 시작  미국 주식시장 붕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도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살아야 할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절망할 이유나 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신다는 점을 주님의 종인 제가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모든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입어 여러분은 절대적인 희망과 약속과 확신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힘을 행사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위해 언제나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평화의 장소를 마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한 사람을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인류를 위한 더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An Anchor to the Souls of Men”, *Ensign*, 1993년 10월호, 70쪽.

### 1930~1939년

교회가 궁핍한 자와 실직한 회원들을 돕기 위한 공식 복지 프로그램 도입(아래)

1939년 독일에 있는 모든 선교사가 중립국으로 이동하도록 지시 받음. 그 후 모든 선교사가 유럽에서 철수



803,528명  
129개

### 1940~1949년

회원들이 채소밭을 가꾸고, 통조림을 만들고, 석탄을 저장하라는 권고를 받음

그랜트 회장 사망. 조지 앨버트 스미스가 그 뒤를 이음

제2차 세계대전 후 교회가 유럽에 구조물자를 보냄(아래)

복지가 교회의 영구 프로그램이 됨



1,078,671명  
175개

### 1950~1959년

스미스 회장 사망. 데이비드 오 맥케이가 교회 회장이 됨

미국 대통령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아래) 장로를 농무부 장관으로 임명

맥케이 회장이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고 선포



1,616,088명  
290개

### 1930~1939년

스페인 군주국이 전복됨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 침공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침공

일본이 중국 침공

러시아-핀란드 전쟁



### 1940~1949년

제2차 세계대전

유대인 대학살로 수백만 명 사망

원자력 무기가 처음으로 사용

냉전 시작



### 1950~1959년

한국전쟁

수소폭탄 개발

냉전 심화

베트남 전쟁이 확대됨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에서 정권 장악



조기 생도 책, 독일에 있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박물관 소장. 카이저호펠의 견해 사진.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도표, 전쟁 사진, 묘지, 미사일 © Corbis; 데이비드 오 맥케이 그림 © EVERETT CLARK THORPE, 복사 금지.



“ 우리는 곡물 저장소와 창고를 지어서 재난이 닥칠 경우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창고는 가정에 있는 비축실입니다. ……

우리 회원들은 재앙 속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권고와 격려를 75년간 받아 왔습니다. ……

저에게는 우리가 주님의 빛과 그분의 복음,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며, 도와주시리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62쪽.

	1960~1969년	1970~1979년	1980~1989년
<b>교회의 주요 사건</b>    	선교사들을 위한 정식 언어 훈련이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시작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이 와드 교육 프로그램을 대체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강조됨	   맥케이 회장 사망. 조셉 필딩 스미스가 회장직 승계  2년 후 스미스 회장 사망. 해롤드 비 리가 회장직을 승계하지만 18개월 만에 사망. 스펜서 더블류 김볼이 교회 회장이 됨  칠십인 제일 정원회 조직  합당한 모든 남성 회원에게로 신권 성임 자격이 확대	  몰몬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부제가 붙음  칠십인 제이 정원회 설립  김볼 회장 사망. 에즈라 태프트 벤슨이 교회 회장으로 지지 받음
<b>교회 회원 수 스테이크 수 (해당 시기 마지막 해 수치)</b>	2,807,456명 496개	4,404,121명 1,092개	7,308,444명 1,739개
<b>세계의 주요 사건</b>    	베를린 장벽이 설치됨  쿠바 미사일 위기  제2차 중동전쟁(6일 전쟁)	  제4차 중동전쟁(옴키푸르 전쟁)  뮌헨 올림픽 테러사건 발생  캄보디아 대량학살	포클랜드 전쟁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정권 붕괴  정기 여객기가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폭발됨  베를린 장벽 붕괴  미국이 파나마 침공



# 금식의 법

금식의 법은 완전한 율법입니다. 금식을 우리 삶에서 실천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완벽에 이르는 여정에 오를 수 없습니다.



로버트 엘 심슨은 1915년 8월 8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다. 1942년 6월 24일에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켈레 찬들러와 결혼한 그는 슬하에 네 자녀를 두었다. 1961년 9월 30일에 심슨 장로는 존 에이치 벤덴버그 감리 감독의 제1보좌로 부름을 받으면서 총관리 역원 직분에서 봉사하기 시작했다. 이 후에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와 칠십인 제일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했다. 심슨 장로는 2003년 4월 15일 유타 주 세인트 조지에서 87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다음 기사는 그가 196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전했던 말씀에서 발췌한 것이다. 현행 영문법에 따라 구두점, 대문자, 단락을 수정했고 부제도 추가했다.

로버트 엘 심슨(1915~2003) 장로 칠십인

**모** 든 것이 가속화되고 혼란스러워지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세대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지만 실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율법이 바로 금식의 법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하나로 생각될 정도로 동시에 하는

신앙의 행위로 인식됩니다. 아담 시대의 사람들도 금식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시나이에 있던 모세도 역시 그러했습니다.(신명기 9:9~11 참조) ……

선생이신 구주께서 …… 서반구를 방문하신 후 그곳에

있던 백성들은 “금식과 기도를 계속하며, 자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계속”(제4니파이 1:12)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너무나도 완전하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온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 다툼이 없었으며,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능한 기적들이 행하여졌[습니다].”(제4니파이 1:13)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흥분되지 않습니까!

## 오늘날의 기도와 금식

현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율법은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이제부터 기도하며 금식하기를 계속할지니라”(교리와 성약 88:76)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복음 교육은 기도와 금식이라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주된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내가 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칠지니라.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는 너희가 이론에 있어서 원리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복음의 법에 있어서 너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함이요.”(교리와 성약 88:77~78)

어느 누구도 영의 인도를 받지 않은 채 영적인 것을 가르치려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나 가르치지 말지니라.

나의 경전의 충만함이 주어지기까지 너희의 가르침에 관하여 내가 명한 대로 이 모든 것을 지켜 준행할지니라.

또 너희가 보혜사로 말미암아 너희 목소리를 높일 때에는 나



증거하심이니라.”(교리와 성약 42:14~17)

#### 모든 교사에게 주어진 약속

모든 교사들이 이 약속이 전하는 의미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신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으로 가르친 예에 관해서라면 모사이야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좋은 예는 없습니다. 물론경에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라.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어,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더라.”(앨마서 17:2~3)

교회에서 봉사하는 신권 지도자와 보조 조직 지도자라면 누구나 그와 같은 권능이나 확실한 약속을 받기 위해 모든 걸 바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앨마가 말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습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어,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습니다.”**

보기에 좋을 대로 말씀하며 예언할지니,

이는, 보라, 보혜사는 모든 것을 알며 아버지와 아들을



어떤 축복을 받으려면 그와 관련된 특정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손에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두 그 축복을 위하여 정해진 율법과 그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대로 마땅히 지켜야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32:5)

주님께서는 이 원리를 참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후기 성도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가장 감미로운 영적 경험을 그들 자신에게서, 그리고 자녀들에게서 빼앗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월례 금식일

필요에 따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는 금식뿐만 아니라 교회 회원들은 금식 간증 주에 연속해서 두 끼 동안 식사를 금합니다. ……

명망 있는 의학계 권위자들은 때로 금식을 하는 것이 신체에 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 축복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금식을 하며 절약한 돈을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금식 현금으로 감독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금식을 할 때 다른 방법으로는 얻지 못할 영적인 축복을 얻습니다. 2천년 전에 살았던

축복 받은 일부 사람들이 그랬듯이 금식은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합니다. 물론경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 겸손한 중에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여져서 그 영혼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우기에 이르렀고, 참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함과 성결하게 되기에 이르렀나니, 이 성결하게 됨은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히라맨서 3:35)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영혼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대개 금식을 할 때는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동정 받아야 할 사람처럼 슬픈 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반대로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진정한 기쁨은 궁핍한 이들이 축복 받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 경건”을 이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다운 놀라운 행동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태복음 6:16~18)

### 금식의 축복

이제 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 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공핍한 이들이 축복 받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야기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야고보서 1:27 참조)을 이행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놀라운 행동을 성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보다 더 좋고 완벽한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나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신명기 15:7~8)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베푸는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명기 15:10)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명기 15:11) ……

### 완벽에 이르게 하는 율법

그렇습니다. 금식의 법은 완벽한 율법입니다. 금식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완벽에 이르는 여정에 오를 수 없습니다. 금식을 언제 시작하고 멈출지는 여러분이 선택하겠지만 금식 간중 주일에 영적으로 최고조에 이르러 가장 고양된 상태로 지낸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감독님에게 얼마를 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기꺼이, 정확하게 바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 이를 행한다면 이는 마음 설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 만족은 순종할 때 찾아옵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커다란 만족감이 샘솟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진리에 순종할 때마다 보상으로

받는 마음의 평안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 규율을 금식과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금식과 기도로 그 미덕을 마음에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족의 단합을 다시 이루느냐에 세상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를 성취하는 데에는 금식과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신성한 인도를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이에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적이 쏟아 붓는 힘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의 영향력도 금식과 기도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

…… 엘마가 전한 말씀에 제 간증을 더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나는 내가 말한 이러한 것이 참된 줄을 아노라. 이에 너희는 내가 어떻게 그러한 것의 확실함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보라, 내가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알고자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참으로 그러한 것이 참된 줄을 스스로 아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것들을 내게 나타내 주셨음이니, 이는 내 안에 있는 계시의 영이니라.”(엘마서 5:45~46) ■



#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기억하며

## 제8회 국제 미술 대회

헤더 엘 스타크

**하** 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 속에서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을 나타내 보이고, 간증이 강화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찬송가 선율로, 진흙 만들기로, 또는 붓질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제8회 국제 미술 대회 전시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44개국 회원들이 전하는 간증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리와 성약 115편 5절에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후기 성도 미술가들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따릅니다.

3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 출품된 작품들 중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기억함”이라는 주제로 만든 회화와 수공예품들도 있습니다. 미술가들은 작품에서 우리의 지상 가정, 회복된 복음, 우리 구주의 속죄라는 주제를 표현했습니다. 출품작 1,089점 중에서 200여 점을 선정하여 전시했으며, 여기에는 우수상을 받은 작품 20점과 구매상으로 선정된 작품 18점도 있습니다.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전시는 끝났지만,



인터넷으로 [ArtExhibit.Lds.org](http://ArtExhibit.Lds.org)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여러분은 작품이 전하는 명백한 간증에 힘입어 영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오른쪽: 도중에 멈추어 서서, 카르멜로 후안 쿠유투파 카레스 작, 페루**  
 “평원을 건너는 개척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단함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왼쪽: 의심하지 않았다, 조셉 브리키 작, 미국**  
 “참으로 [청년 용사들]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받았었더라.”(엘마서 56:47)



**위쪽: 감사를 드리고(잠언 22:6), 엘리자베스 리나 미오타 작, 브라질**  
 “부모에게서 배우는 기도는 16개월 된 아이도 배워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첫 접촉입니다.”

오른쪽: 신앙으로  
내딛는 발걸음,  
알프레드  
이그비니지 작,  
나이지리아  
“이 목각은 1838년에  
미주리 주 성도들이  
겪은 고난을  
묘사합니다.”



위쪽: 아가페, 발레리아노  
우골리니 작, 이탈리아  
“이 그림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시각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아래쪽: 하늘의 창, 에밀리 맥피, 미국, 구매상  
“저는 제 어린 딸을 보며 가슴이 벅차 오르고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딸의 눈 속에서 하늘의 창이 열리고 사랑과  
빛이 쏟아지는 듯했습니다. 자녀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왼쪽: 마틴 손수레  
부대의 일원인 멜러  
가족, 더글러스  
맥개런 플랙, 미국  
“이 아홉 명의 가족은  
시온으로 가는 여정에서  
모두 살아 남았습니다.”

**오른쪽: 뿌리를 내려,  
하이디 레니 솜슨,  
캐나다**

“뿌리가 나무를 땅에 묶어  
두듯이 가족은 복음 안에서  
사랑과 성전 의식을 통해  
함께 묶입니다.”



**오른쪽: 안식일을  
준비함, 미수리시  
느쿠베 작,  
짐바브웨**

“이 어린 소녀는 경전  
과제를 읽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시골에  
사는 여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옷을 빨고  
있습니다.”



**위쪽: 갯세마네 숲, 데릭 제이 헤그스테드 작, 미국**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동안 올리브 나무로 뒤덮인 숲을 보며 그리스도께서 ‘가꿈’ 갯세마네로 가신(요한복음 18:2 참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 모든 생명은 위대한 창조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찬미하고 싶습니다.”



**위쪽: 불멸에 직면하여, 델 파슨 작, 미국**

“날이 저문 지금,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고기잡이 배에 있는 돛대들은 구주께서 지상에서 보내실 마지막 날에 그분을 기다리고 있을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왼쪽: 사랑의 빛 안에 걸어 가고, 아이 멩 트사이 작, 타이완, 구매상**

“잘 알려진 이 어린이 노래책에 실린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위쪽: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로저 쿠싱 작, 미국**

“신앙이 있는 이 여인은 회개하고 구주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 구주께서 지니신 구속의 사랑을 받아 여인의 마음에 희망이 싹트었습니다.”

## 금식 헌금을 두 배로 내면서

**어**느 일요일 아침, 성찬식 모임에서 감독님은 와드 회원들에게 금식 헌금을 좀 더 후하게 내도록 요청하셨다. 갓 결혼한 나는 그때 남편이 졸업할 때까지 빚을 지지 않고 살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금식 헌금을 더 내라는 건 풍족하게 지내는 회원들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감독님은 와드 회원들이 각자 금식 헌금을 두 배로 낸다면 생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영은 감독님의 약속이 참되다고 증거해 주었다.

다음 주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금식 헌금 수표에 두 배의 금액을 적어 넣었다. “앞으로 굶주린 생활을 하겠군.” 하고 중얼거리며 봉투를 봉했다.

며칠 후, 출근을 하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기름이 부족하여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그런데 주유를 하자 곧바로 엔진에서 기름이 새어 나왔다. 정비사에게 전화를 했고, 그는 정비소로 곧장 차를 몰고 오라고 했다. 눈물을 머금은 채 나는 몇 킬로미터를 달려서 정비소에 도착했다. 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정비사는 수리비가 비쌀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타이밍벨트도 교체할 때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또 하나 추가된 셈이다. 차를 정비소에 맡긴 나는 망연자실한 채 출근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비사가 밝고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를 해 왔다. 나는 그저 ‘많은

돈을 뜯어내려 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정비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주려고 전화를 한 것이었다. 정비사가 우리 차를 수리하고 있을 때, 우연히 친구 한 사람이 정비소에 들렀다. 그 친구는 내 차종을 취급하는 대리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친구는



정비사에게 뭘 수리하느냐고 물었고, 정비사는 내 차의 문제를 설명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 그 문제 때문에 리콜하는 거 몰라? 그건 자동차 회사가 부담하는 거야.”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정비사는 기름이 엔진 여기저기로 흘렀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 타이밍벨트와 다른 벨트 교체 비용까지 모두 부담할 거라고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깨달았고,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쏟았다. 그분의 사랑에 감격했고, 내 부족한 신앙이 창피하게 느껴졌다.

이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신앙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노력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은 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때 일처럼 우리의 기도에 항상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점도 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금식

**주유를 하자  
곧바로  
엔진에서  
기름이 새어  
나왔다. 눈물을  
머금은 채  
정비소로 차를  
몰았다.**

헌금을 후하게 낼 때 받는 축복과 우리의 관대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한 간증이 생겼다는 것이다. ■

브룩 맥케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 몰몬경을 믿습니까?

**내**가 교회에 들어올 무렵에 나이지리아는 경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때 나는 직장을 잃었고,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금식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나는 나이지리아에서 급성장하던 한 건설 회사에서 면접을 보았다. 면접관은 사장과 부장, 컨설턴트까지 모두 세 사람이었다. 일반적인 질문은 쉽게 대답했는데, 그 지역 교회 목사이기도 한 컨설턴트가 던진 질문은 정말 뜻밖이었다.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회교도입니까? 아니면 전통주의자입니까?”

나는 밝게 웃으며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에 컨설턴트는 다시 한 번 질문했다.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대답해 주었다.

“뭐라고요! 그 교회 말입니까?” 컨설턴트는 크게 외쳤다. “모든 활동이 베일에 쌓인 그 비밀스러운 교회에 다닌다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가 말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나는 재빨리 “사실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다. “모임을 비밀리에 하거나 일부러 숨기지도 않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모임에 오셔서 직접 보시지요.”

“저는 그런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컨설턴트가 말했다. 면접 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자 사장은 분위기를 환기시킨 후 면접에 와줘서 고맙다고 나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그리고 3일 후, 나는 2차 면접을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장과 부장, 컨설턴트가 다시 면접에 함께 했다. 구매와 공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컨설턴트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몰몬입니까?”

내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였다.

“몰몬경을 믿습니까?”

“물론이죠! 당연히 믿습니다.” 나는 답했다.

“조셉 스미스가 열네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믿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나는 대답했다.

면접이 끝날 즈음 나 외에도 수많은

지원자들이 면접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몇 주 후, 놀랍게도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장은 내게 2차 면접까지 통과했으니 이제 고용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경험을 되돌아볼 때 나는 교회와 내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나는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 우리가 계속 충실하게 남는다면 그분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

소솔라 올라다포 솔로몬,  
나이지리아 라고스

“모든 활동이 베일에 쌓인 그 비밀스러운 교회에 다닌다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컨설턴트가 내게 물었다.



## 나머지 날들을 위한 양식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친구들과 나는 졸업식 댄스 파티를 손꼽아 기다렸다. 학교에서 댄스 파티 날짜를 발표하는 날, 나는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정말 당황했다.

“마리엘라, 인생에서 딱 한 번이잖아!” 한 친구가 말했다. “꼭 가야 한단 말이야. 교회를 빠지는 일은 다신 없을 거야. 이번 딱 한 번만 빠지고 댄스 파티에 가자니까.”

나는 친구에게 그건 교회를 빠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실제로는

주님께 그 하루를 바치는 데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친구가 말한 내용을 계속 생각하자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 ‘이번 한 번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큰 문제가 될까?’ 어쨌든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 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텐데, 또 우리는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던가. 댄스 파티는 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마지막 기회였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생각에 잠겨 있는데, 아버지께서 안식일은 한 주의 나머지 날들을 위한 “양식”이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머리에 떠올랐다.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을 받지 않고도 나는 괜찮을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나는 답을 알고 있었다.

친구들에게 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알리자 모두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친구들이 댄스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솔직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지만 내

결정이 옳다는 건 분명히 알았다.

그런데 댄스 파티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전혀 뜻밖의 일이 생겼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학교에서 날짜를 변경한 것이다. 그래서 댄스 파티는 일요일 저녁이 아닌 토요일 저녁에 열리게 되었다! 댄스 파티에 함께 가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뻐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든 것은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내 결심을 잘 지켰다는 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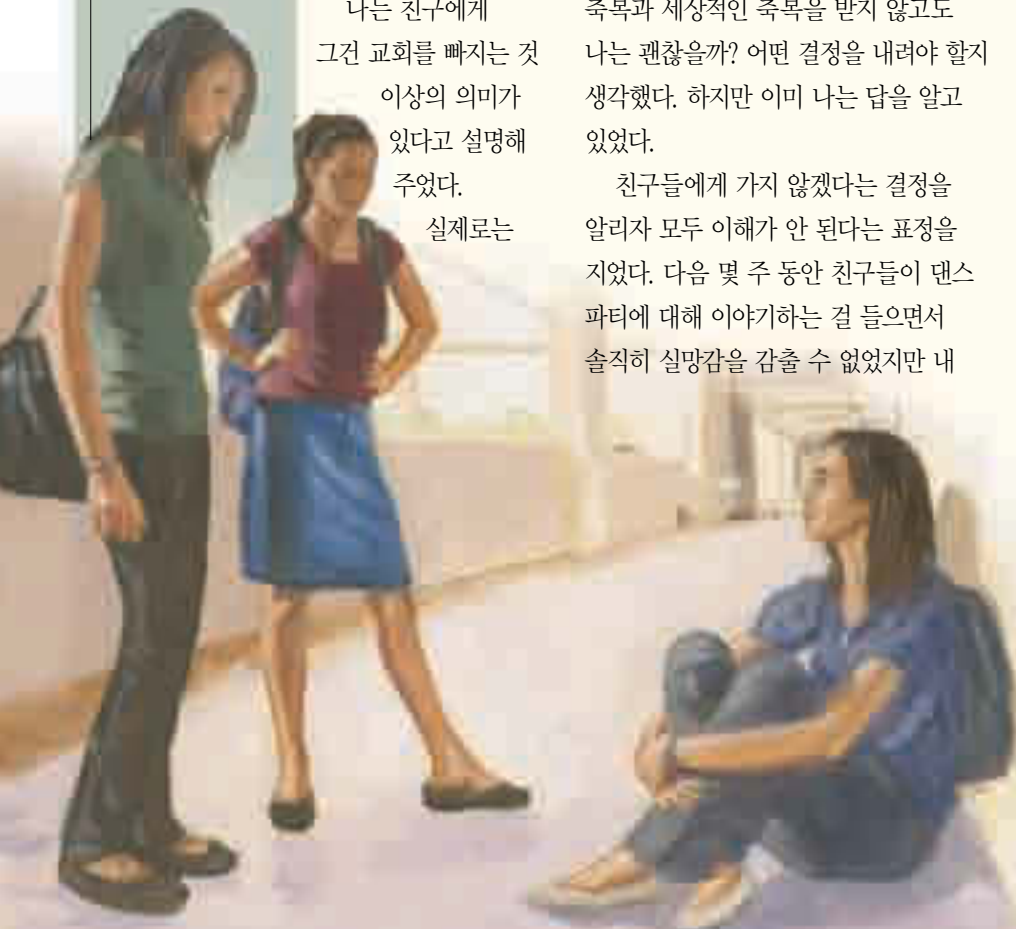
댄스 파티를 참석할 수 있어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축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점도 깨달았다. 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순종할 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때 다져 놓은 순종의 힘은 청년 성인이 된 나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 학교 과제, 해야 할 일, 사회 활동 등 일정이 매우 바쁘지만 나의 일요일을 주님께 바침으로써 그러한 일에서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아버지께서 옳으셨다. 일요일은 정말로 위대한 영적 양식의 근원이다. 내가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힘을 재충전하며, 다가올 한 주를 위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

마리엘라 토레스 메사, 코스타리카 산호세

**“이번 딱 한 번만 교회 빠지고 댄스 파티에 가자니까.” 한 친구가 말했다.**



## 채소밭에 관한 꿈

**중** 실하고 활동적인 후기 성도 가정에서 성장한 나는 내 자녀 중 한 아이가 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

성전에서 결혼한 남편과 나는 일곱 자녀를 두었고, 우리는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간증을 나누었으며,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고 가정의 밤도 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가족과 함께 경전도 읽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나는 슬픔에 잠겨 주님께 의지하며 힘을 달라고 간구했다. 나는 우리 삶에서 선택의지가 차지하는 역할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지 않을까? 아들이 진리로 돌아오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더 있을 거야' 하고 생각했다. 나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의 신앙이 온전하다면 그 아이가 변화되지 않을까?

어느 날 밤 잠자리에서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파고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여기셨는지 꿈으로 답을 알려 주셨다. 단순한 꿈이었지만, 나에게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꿈에서 나는 채소밭에 있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도 채소는 자라나지 않았다. 꿈에서 나는 씨앗에게 제발 좀

싹을 틔우라고 외쳤다. 자라나라고 잔소리를 하며 다그쳤다! 그리고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트렸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채소가 잘 자랄 거라 생각한 밭상 자체가 너무나 우스웠기 때문이다.

그 순간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곧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했다. 내가 가꾸려고 노력한 그 씨앗은 바로 내 아들이었다. 내가 씨앗을 싹트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명령한다고 해서 아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는 일이다. 밭에 뿌려진 씨는 제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성장 능력을 갖고 있고, 씨앗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 아들도 하나님의 영의 아들이기에 이미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신의 선택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

채소밭에 관한 꿈에서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잡초를 뽑았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로서 나는 자녀들의 삶에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려 노력하며 간증을 나누고 사랑을 보여, 있는 힘껏 그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매개체가 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큰 선생님이자 농부인 주님께서 채소를 키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 또한 희망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고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하고 있음을 알려 주신다. 매일 그분의 사랑을 실감할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며, 내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계속 씨앗을 심을 것이다. 그러면 추수하는 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

익명

**꿈**에서 나는 씨앗에게 제발 좀 싹을 틔우라고 외쳤다. 자라나라고 잔소리를 하며 다그쳤다! 그리고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트렸다.



# 육신의 팔에 기대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학식을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잊지 마십시오.

**교**리와 성약 서문에서 우리는 육신의 팔에 기댈 때 받는 제한에 대해 배웁니다. “곧 세상의 연약한 것들이 나아와 힘 있고 강한 것들을 부수리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이웃을 권고하지 않게 하며,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 함이요”(교리와 성약 1:19) 이 경고를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학식을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잊지 마십시오.

30여 년 전, 저와 제 의과대학 급우들은 절대 잊지 못할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멕시코 서부 연안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만사니요에서 겪은 일입니다. 때는 1978년이었습니다. 1947년도 졸업생인 우리는 배우자들과 함께 의학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과학 관련 회의가 끝난 어느 저녁에 동료 의사 중 한 명이 별안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과다출혈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연실색한 우리는 동료를 에워싸고 생사를 결정할 중요한 혈액이 빠져나오는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 내과 전문 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각기 30년 이상 해당 분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가장 가까운 병원이 있는 과달라하라의 산악지대를 지나 160킬로미터 이상이나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곳을

뜰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장비가 부족했기에 수혈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생각해도 출혈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인 그를 살려낼 설비와 기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통에 괴로워하던 그 충실한 후기 성도 친구도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핏기가 없어 창백해진 그는 나지막이 신권 축복을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 몇몇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였습니다. 친구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곧바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 기쁨부음에 대한 인봉은 제가 했습니다. 영의 음성에 따라 저는 그가 축복을 받아 출혈이 멈추어 계속 살아갈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 축복은 주님의 이름으로 집행한 의식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는 호전되었습니다. 기적처럼 출혈이 멈춘 것입니다. 혈압도 정상치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정도 지나자 그 친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결같이 놀라운 그 축복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때 배운 교훈은 간단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언 3:5) 우리는 이 교훈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교리, 경전에서 반복하여 가르치는 그 교리는 이제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올바른 직장을 갖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일을 잘 해내야 합니다. 중요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전에 우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육은 종교적인 책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실로 예지입니다.(교리와 성약 93:36 참조)

하지만 인간의 학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멕시코 시골 지역에서 있었던 일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지식을 총동원해도 어찌지 못하는 위급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멕시코에서 겪은 그 일에서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필멸의 존재인 우리가 성취해야 할 궁극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는 가장 고결한 운명과 관련됩니다. 우리는 의사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병원이 아니라는 점을 압니다. 항공기 조종사의 종착지는 보잉 747 여객기 조종실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 선택하는 직업은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목적은 바로 미래에 여러분이 되어 있을 사람 그 자체,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 있을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적인 경력의 끝날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취하려고 열심히 일한 경력, 즉 여러분과 가족을 부양해 준 일은 언젠가는 뒀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위대한 교훈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한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이룬 사람 됨됨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 시기를 마치고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람됨입니다.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애, 겸손, 근면”(교리와 성약 4:6)과 같은 성품이 주님의 저울에서 측정될 것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분께서



**생계를 위해 한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이룬 사람 됨됨이입니다.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애, 겸손, 근면”과 같은 성품이 주님의 저울에서 측정될 것입니다.**

충실한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만큼 나는 합당한가? 성전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을 받았는가? 내가 맺은 성약에 충실한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 중 가장 위대한 축복인 영생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는가?(교리와 성약 14:7 참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즉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은 경전에 나오는 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즉 아무도 사람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길지어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원무궁토록 거하리라.”(교리와 성약 76:61~62) 그러한 약속이 우리 모두가 도달할 궁극적인 종착지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

2009년 4월 23일에 브리검 영 대학교 졸업식에서 전한 말씀

주

1. 잠언 11:28; 예레미야 17:5; 로마서 8:1; 니파이후서 4:34~35; 니파이후서 28:31; 교리와 성약 1:19~23 참조

# 일이 잘못되어 가는 듯할 때

나는 복음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점점 더 나빠졌을까?

린 시-치아

**5년** 도 더 된 일이다. 나를 가르친  
선교사 하이 자매님이 준 물몬경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일은 시작되었다.

물몬경은 다시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 책에는 여러 구절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참조 성구들도 빼곡히 적혀 있었으며, 책갈피에는 고이 간직해 둔 인용문들, 친구가 준 마음 푸근해지는 쪽지들, 축복사의 축복문까지 들어 있었다. 찾고 또 찾아봐도 물몬경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이 책을 그렇게나 부주의하게 다루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얼마 후 나는 일자리 하나를 잃게 되었고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나는 부모님께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이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문제였다.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켜왔는데 왜 모든 일이 좋지 않게만 되어가는 걸까? 학교 친구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빈정거렸다. “교회에 참석하는 비용을 줄여야지. 그럼 버스요금은 아낄 수 있잖아.” “한두 달 교회를 쉬지 그러니? 교회에 안 나가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걸.”

친구들의 말에도 조금은 일리가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내 삶이 더 나아질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 음력 설날에 찍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들 덕분에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생각했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는 종교 교육원의 교사이신 오우 자매님에게 내 심정을 털어 놓았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회원들 대부분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시기에는 개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매님은 신앙에 시련을 겪고 있군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기를 합당하게 보시나니, 참으로 그는 그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시느니라.’(모사이야서 23:21)”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내가 물었다.

오우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전을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기도도 더욱 열심히 하세요. 참된 신앙은 시련과 아픔을 겪을 때 얻는 거예요. 자매님은 신앙이 커지고, 발전하고, 간증이 강화될 거예요.”

나는 오우 자매님의 충고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엘마서 38장 5절에 나오는 가르침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네가 네 시험과 네 곤경과 네 고난에서 건져 내심을 입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네가 들리움을 받게 되리라”

마침내, 나는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은 내 몰몬경을 다시 찾았다는 것이다.

나는 실망과 슬픔, 암흑 속에서 보낸 시간이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임을 배웠다. 오우 자매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한다면 시련은 우리를 큰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교회와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뜻뜻한 설렘이 시들해지고, 어느새 나는 신앙에 시련을 겪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종교 교육원 교사의 도움으로 내 앞에 놓인 기쁨을 볼 수 있었다.*

## 왜 금식 헌금을 내야 할까?

**독** 일 출신인 청년 독신 레베카 앨리슨 티츠는 현재 스위스 빈터투어 와드에 참석한다. 레베카는 금식을 하고 금식 헌금을 후하게 냄으로써 오는 축복에 대한 간증이 있다. 부모님이 금식 헌금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레베카는 수입이 생기고 나서는 직접 금식 헌금을 내기 시작했다.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낸 적이 몇 번 있지만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굶주리지는 않았어요. 음식을 먹지 않아서 느끼는 배고픔은 금세 지나가지만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얻는 영적인 양식의 축복은 오래 지속돼요. 영원토록 말이예요.” 하고 레베카는 말한다.



레베카는 늘 금식 헌금을 아낌없이 내려고 노력했다. “금식 헌금을 내는 데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죠. ‘이 돈은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거야’ 하고 늘 생각해요.”

독일 하노버 할버슈타트 지부에 다니는 레베카의 친구 제시카 슈바베도 이렇게 덧붙였다. “금식 헌금은 금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모두 하나의 개념이에요. 금식 헌금은 자신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하는 금식의 일부입니다.” ■



# 나에게 필요한

## 다른 종교의 경축일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다** 른 종교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주요 신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합니다.]”(신앙개조 제11조)

종교적 경축일에는 특정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회원들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경축하는 것처럼 다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도 거룩한 경축일이 있습니다. 그들 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고 특정 신을 경배하기 위해 그들도 경축일을 기립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경축일이 언제인지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종교의 경축일에 대해 자료를 읽어 보고 그 특별한 날에 그들의 신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하는지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관례, 의식 등을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경축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종교적 상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았다면, 올바른 절차에 대해 알려 달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활동을 단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참여해서는 안 될 활동들을

알려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종교적 관습이 여러분이 믿는 바에 어긋난다면, 즉 와인을 마시는 것과 같은 활동이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대신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그 절차에 대해 협의를 많이 할수록 뜻밖의 낭패를 당할 일을 더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으로써 여러분은 존중을 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종교 경축일에 그들을 또한 초대할 수 있습니다.

## 신권 축복을 받을 때 왜 기름을 부을까요?

**경** 전에는 기름 부움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며, 종종 병자를 치유하는 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13절에는 사도들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라고 나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몸에 기름 혹은 연고를 바른다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기름

부음이 환대나 일상적인 몸단장의 표시였습니다. 아프거나 부상이 있는 사람들은 약으로 기름이나 연고를 발랐습니다. 하지만 성스러운 이유로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율법에 따라 거룩한 기름이 사용되었으며(출애굽기 40:15 참조) 선지자는 제사와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병자도 신앙과 안수례로 치유하는 과정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병자 축복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성스러운 의식(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축복하는 의식)에서 성별된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경전에



## 금식과 단순히 굶는 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 순히 굶는다면 배만 고프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목적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며 하는 금식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축복과 영적인 힘(이사야 58:6~11 참조)을 얻는 방법이 됩니다.

단순히 굶는 것과 달리 금식을 할 때에는 영적인 특정 목적을 추구합니다. 복음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또는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들이 건강해지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소망하며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엘마서 6:6 참조) 하나님

**우리가 금식할 때에는 영적인 특정 목적을 위해 금식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도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금식과 단순히 굶는 일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진지한 기도로 금식을 시작하고 마쳐야 하며 금식 도중에는 금식하는 목적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가 얼마나 고프지 걱정하기보다는 왜 금식을 하는지에 대해 더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이사야 58:9)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복음이 이 지상에서 아담에게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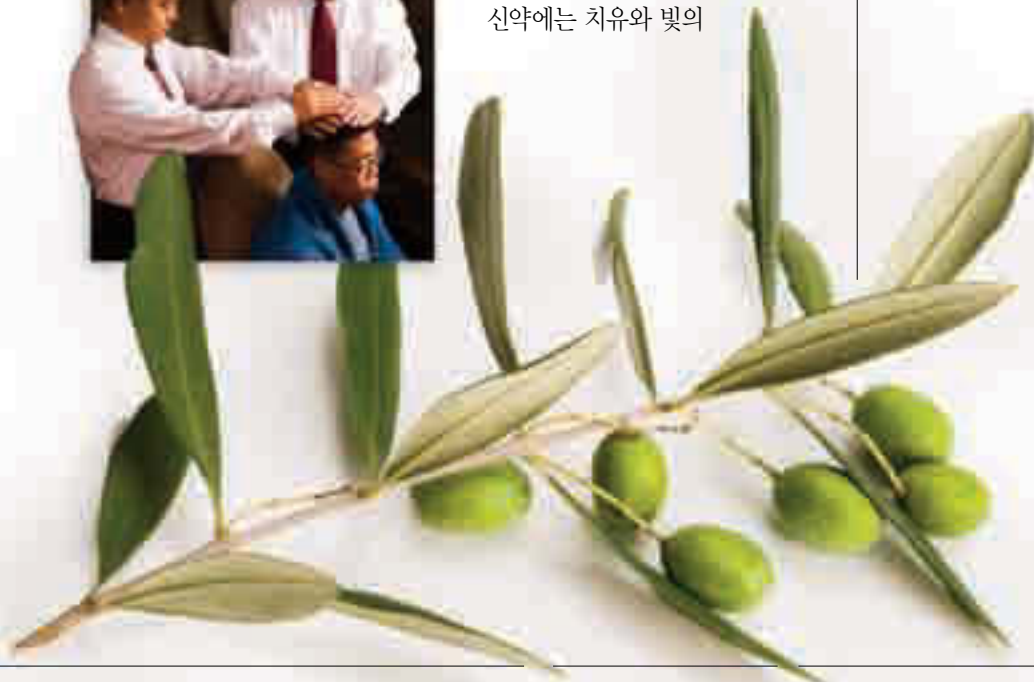
소개된 이후로 기름 부음이 참된 종교, 계시된 종교의 일부였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종류의 기름이 아닌 올리브 기름이 쓰였을까요? 신약에는 치유와 빛의

**기름 부음은 늘 참된 종교, 계시된 종교의 일부였습니다.**

상징으로 기름을 썼다는 비유가 나오지만(마태복음 25:1~13; 누가복음 10:34 참조) 올리브 기름을 쓰는 이유가 경전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올리브 가지는 종종 평화를 상징하고, 올리브 나무는 경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야곱서 5장 참조) 쓴 맛이 나는 올리브 열매를 압착하면 달콤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은 구주의 속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

주  
1. Bible Dictionary, “Anoint”, 609쪽.



# 옳은 교회를 찾는

이 지상에 살아 있는 선지자가 이끄는 교회가 있을까?



로베르토 핀에이로 로차

**친** 구 줄리엣과 컴퓨터로 채팅을 하던 중이었다. 줄리엣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살아 있는 선지자가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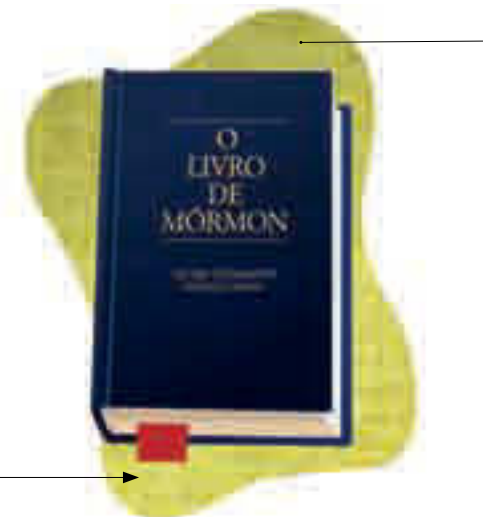
하지만 줄리엣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지상에서 선지자를 부르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신 거야. 왜냐하면 선지자를 부르지 않으시고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아모스 3:7 참조)

나는 줄리엣에게 물었다. “그 살아 있는 선지자는 어디에 있니?” 하지만 줄리엣도 그 답은 몰랐다.

나는 어떻게 옳은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교리도 가지각색이라는 점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음, 인터넷에는 여러 정보가 있지. 그래서 “박해 받는 참된 교회”라는 문구로 검색을

했다. 왜 그 문구로 검색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검색 목록에는 여러 교회 이름이 있었고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도 보였다. 브라질에는 많은 기독교가 있지만 그런 이름은 그날 처음 보는 것이었다.

나는 교회 웹사이트에 접속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물문경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한 열네 살 소년의 이야기를 읽었다. 전에 조셉 스미스나 물문경에 관해 들은 적이 없었기에 그 내용이 흥미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 관심을 끈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에 살던 고대 원주민들에게 나타난 내용이 물문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였다.





하나님의 말씀

“[몰몬경]이 참되다는 증거와 그 신성성에 대한 증거는 이 책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진리를 시험해 보는 방법은 바로 책을 읽어 보는 것입니다. ……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읽어 본 사람들은 자신의 오관을 초월하여 그 책이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원한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신앙의 네 모퉁잇돌”, 리아호나, 2004년 2월호, 6쪽.

나는 그 책이 너무나 읽고 싶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몰몬경 한 권을 신청했다. 줄리엣에게도 그 웹사이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줄리엣은 조셉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줄리엣은 내가 잘 준비되어 주님께서 자기 대신 이 교회를 찾게 해 주셨다는 말을 했다.

나는 너무나도 강하게 확신하는 줄리엣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나 스스로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우선 몰몬경에 대해 아시는 게 있는지 어머니에게 여쭙어 보았다. 어머니는 언니가 두 선교사에게서 받아 둔 파란색 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그 책을 빌려서는 한 주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일에는 관심이 가지 않았다. 그때 느낀 그 평화스러운 기분이란! 이 책을 읽고 그것이 참된지 하나님께 여쭙어 보면 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나는 잊지 않았다.(모로나이서

10:3~4 참조)

나는 아침 일찍 기도를 드리기 위해 내 방으로 갔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께 그 책이 참된지 알려 주시기를 바라며 간구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기쁨을 느낀 건 확실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꾸 꿈에는 몰몬경 속 선지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나는 그 선지자에게 그 책이 참된지 물어 보았고 그분은 그렇다고 대답해 주셨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몰몬경은 정말로 참되구나.’

나는 교회를 찾아가 보려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에게 위치를 물어보았다. 그러다 아는 사람을



찾아냈다. 어느 금요일, 자전거를 타고 나는 예배당에 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언제 모임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갔다. 교회에 도착해서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 모임이 일요일 아침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심장이 마구 고동치고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일요일 아침 교회에 들어가자 회원들이 나를 반겨주었다. 나는 교회 조직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모임에 참석하면서 마음 속으로 평안과 기쁨을 느꼈다. 나는 선교사들에게 집에 와서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께 참된 종교를 찾았다고 말씀드렸다.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이야기를 가르쳐 주었다. 조셉 스미스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었고, 선교사들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기도해 보라고 권유했을 때 이미 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말에 선교사들은 놀라워했다. 우리는 침례 날짜를 2004년 5월 15일로 정했다. 그 동안 줄리엣도 침례를 받았다. 침례는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나와 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찾았다는 사실에 정말로 행복하다. ■

# 쿰부카에 걸려 들다

원숭이처럼 걸려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브** 라질 원주민들은 쿰부카라고 불리는 원숭이 덫을 사용합니다.  
**—** 쿰부카는 둥근 조롱박에 원숭이가 손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구멍을 내서 만듭니다. 그리고 바닥에 말뚝을 박고 조롱박을 연결시킨 다음에 그 안에 원숭이를 유혹할 만한 것을 넣어 둡니다. 대개는 바나나같은 과일을 넣습니다. 어리석은 원숭이는 손을 넣어 바나나를 잡지만, 바나나를 움켜쥔 채로는 절대 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바나나를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숭이는 덫에 걸려들고 맙니다.

우리를 잡기 위해 사탄도 그런 덫을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숭이처럼 어리석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미가 당기도록 덫을 아름답게 꾸며 놓겠지만 그 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추하고 참혹한 결말에 이르며, 우리의 영생이 위협에 처합니다. 우리는 원숭이보다 현명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덫을 피하고, 잡아서서는 안 되는 것을 움켜쥐었다면 손을 놓고 벗어나야 합니다.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티스 장로  
철심인

**댄스 파티에 발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열여섯 살 때, 교회 활동 모임을 마치고 세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밤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 정원에서 같이 어울려 지내곤 했습니다. 우리는 저희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재미있었던 교회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하나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처에 십대들 사이에 유명한 클럽이 하나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는 댄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우리도 한 번 거기 가봐야 해.” 하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 클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다른 두 친구와 저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곳 표준이 교회 활동과 같지 않음

것이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단정하지 못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요란한 박자에 맞추어 시끄럽게 흘러 나오는 음악은 대부분 부적절하고 선정적인 가사투성일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좋은 친구였고, 매우 활동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파티에 꼭 가봐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며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셋은 이 친구를 말리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 가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너희한테 보여줄게. 너희는 진짜 재미있는 걸 놓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그는 콤투카에 손을 넣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친구는 금요일 댄스 파티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토요일, 교회 후원 활동에 와서는 댄스 파티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 파티에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친구는 매주 파티를 즐기다가 토요일 밤 댄스 파티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일요일 교회 모임에도 늦었습니다. 파티에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기에 일요일에는 피곤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는 날은 뜸해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교 사업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그 친구와 전화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에 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아주 냉담해졌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우리 네 사람을 되돌아 봅니다. 세 명은 모두 교회에서 활동 회원으로 남아 성전에서 결혼하고 신권 직분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훌륭했던 한 친구는 떨어져 나가 교회 밖에서 결혼하고 이제는 완전히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는 복음의 축복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그 친구는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우리 넷은 갈림길에서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친구가

심화: 브라이언 콜



## 덧을 알아보고 피하기

**아** 이두카이티스 장로님은 영적인 덧을 알아보고 피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언하셨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이를 테면 성찬식에 참석해서 성약을 새롭게 하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청남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에, 청녀는 개인 발전 기록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미나리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선하고 충실한 부모님과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덧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유혹에 저항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전을 읽으면 필요할 때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도 강한 힘을 얻습니다. 만일 '쿰부카에 바나나가 있네. 한 번 꺼내 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기도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도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강화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보호장비는 덧을 덧으로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계명이 단지 좋은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 하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즉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표준과 맞지 않는다면 그냥 버리십시오.”

가고자 하는 곳이 우리가 가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만 알았지,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결정이 될 줄 몰랐습니다.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의 훌륭한 모범으로 청소년들을 개종시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는 속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친구가 다른 길로 개종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사소해 보이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옳은 선택을 했던 것에 참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교리와 성약 87편 8절에서



**이러한 표준들을 숙지하고,  
이를 지키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지금 바로 결심해야 합니다.**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라는 권고를 읽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표준을 위태롭게 하지 않겠다고 바로 지금 결심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덧에 걸리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묘사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사무엘상 13:14; 16:7 참조) 사무엘은 여덟 형제 중 막내였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사무엘상 16:13)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사무엘상 17:45~51 참조)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처지였지만 축복과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사무엘상 19~26장; 사무엘하 5:3, 8, 10 참조)

그러나 다윗이 거룩한 곳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본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지만 다윗은 마음이 끌렸고, 사악한 생각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여자는 임신을 하고, 다윗은 일을 꾸며 그녀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사무엘하 11:2~17 참조)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유혹에서 벗어나는 대신 굴복했습니다. 다윗은



**일찍  
바로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로부터 벗어나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탈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 슬픈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 단지 어떤 식으로든 오류가 저절로 바로잡아지기만을 기다리거나 바라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빠르고도 결단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몇 도의 차이”,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58~59쪽.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며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사소한 선택이 낳는 엄청난 결과**

여러분이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 중 하나는 바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책자에 있는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어떤 복장과 음악이 적합한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가르침이 매우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표준들을 숙지하고, 이를 지키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지금 바로 결심해야 합니다. 유혹의 순간이 올 때까지 결심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든, 성전에서 결혼하기에 적합한 생활을 하는 것이든 여러분이 성취하고 싶은 건설적인 일들은 한 번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목표에 관련된 다른 모든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번 어떤 상황에 처해야 고려를 해 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그럴 때마다 애매한 자세를 취한다면 결과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후기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겠다고 빨리 결정할 수록 여러분에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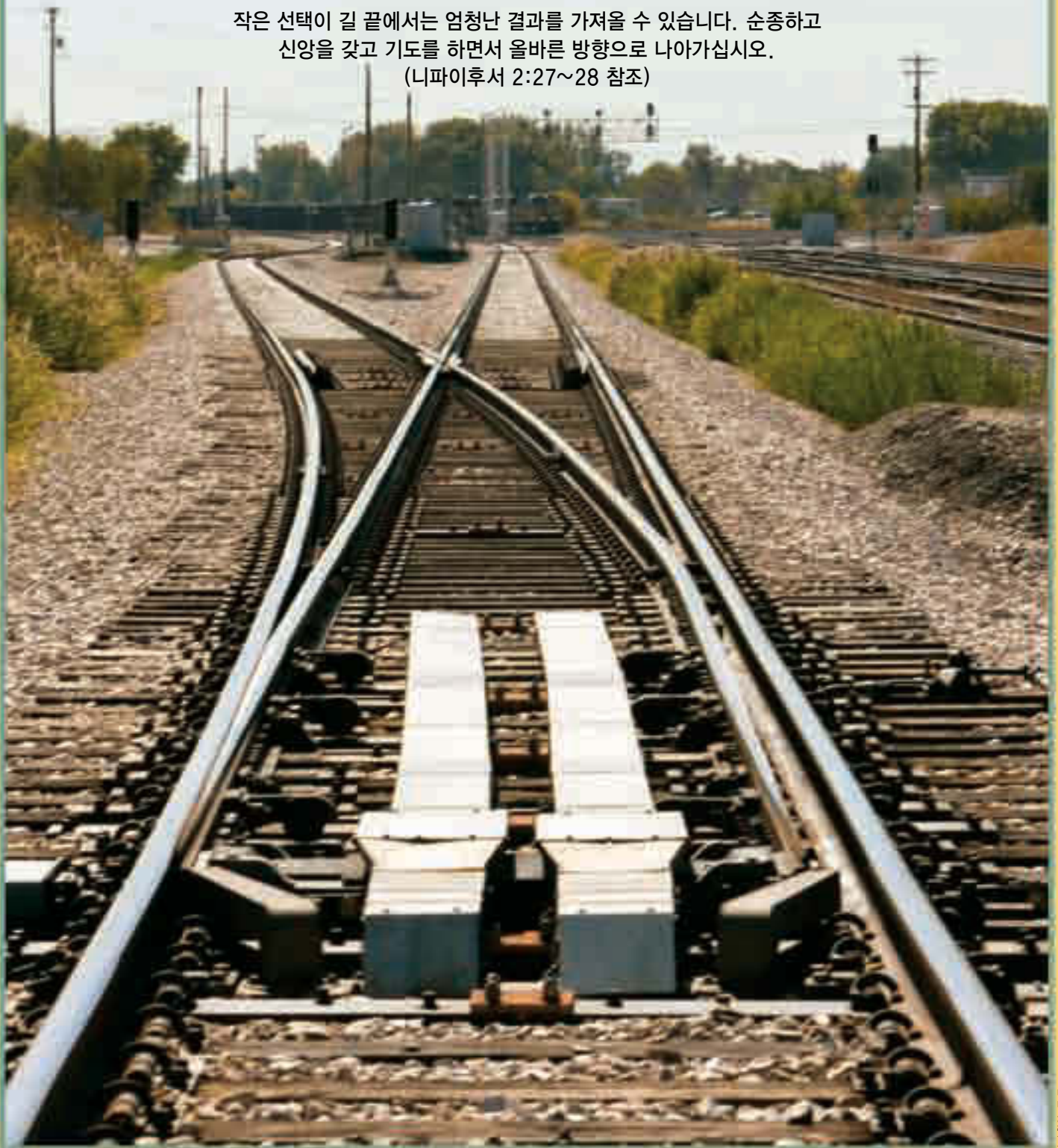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원숭이보다 현명해지십시오. 여러분을 꺾는 것을 움켜잡지 마십시오. 그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콧부카에 걸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

주 1. “President Kimball Speaks Out on Planning Your Life”, *Tambuli*, 1982년 6월호, 38쪽.



# 올바른 행로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작은 선택이 길 끝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신앙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니파이후서 2:27~28 참조)



# 우리들 공간



## 내가 좋아하는 성구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이 구절은 저에게 주님의 길이 제가 따라야 할

바른 길임을 알려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이 성구는 기억해 둘 만한 훌륭한 성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점을 기억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데이나 시, 16세, 캐나다 온타리오 주

## 스트레스가 없는 숙제

**저** 는 16쪽짜리 조사 과제물을 받았습니다. 사촌들도 같은 과제물을 받았지만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저도 몹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제물을 끝내지 못한 채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남아 숙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과제물을 제출했고, 사촌들은 마감시간까지 과제를 끝마쳐야 해서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저는 숙제를 먼저 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밸러리 에스, 18세, 사모아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성**전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침례를 받고 나오는데 절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고,

우리는 교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에서 친구의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와드의 한 여자아이와 예배실에 앉았습니다. 노래와 기도로 의식이 시작되고 훌륭한 말씀들이 뒤따랐습니다. 노래도 몇 곡 연주되었습니다.

저는 영생에 대한 간증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여자아이가 괜찮은지 물을 만큼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아프거나 슬퍼서 운 게 아닙니다. 영을 매우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쏟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를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나단 디, 18세, 스위스



내가 왜 파티에 가지 않는지  
설명할 방법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 수비

프리드리 라본 거더먼트슨

**“왜** 우리랑 안 가는 거니?  
우리랑 어울리기 싫은  
거야?” 그 여자아이가  
소리쳤다.

늦은 봄날이었다. 학교가 끝날  
무렵이었는데, 우리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그런 운조차 따르지 않았다.

여자 아이들은 이렇게 물었다. “왜 도통  
파티에 안 오는 거니? 재미있게 놀고 싶지  
않은 거야?”

“재미있다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보  
같은 게임이나 하고 불편한 상황을

성도이다. 게다가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나  
교회 표준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 반에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아무도 없니?”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문제가



밖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골키퍼인  
나는 경기장에서 밀려 들어오는 공격을  
이리저리 피하고 막아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달랐다. 옆에서 구경하는 여자  
아이들의 측면 공격도 피하고 막아내야  
했다.

상대팀의 공격이 없는 틈틈이 경기장  
옆에 서 있는 우리 반 여자아이 몇 명이  
나에게 따져 물었다. 여자아이들의 질문을  
피할 수만 있다면 상대팀이 프리킥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날은

강요당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재미가  
아니었다. 차라리 집에 있는 편이 훨씬  
나았다.

“서로 친해지려고 그러는 건데, 너  
한 번도 안 나타나더라.” 하고 다른  
여자아이라도 공격에 가세했다.

“난 괜찮아!” 하고 내가 말했다.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면 설명을 해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듯했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가? 나는 학교에서 유일한 후기

아니라 그냥 불편해서 그래.”

“왜 그런데?” 그 여자애가 다시 물었다.

그때, 우리 팀은 공을 뺏겼고 이제 모든  
선수들이 내 쪽으로 달려왔다.

“왜 불편한 건데?” 그 와중에도 옆에  
있던 여자 아이는 자꾸 꼬치꼬치 캐물었다.

가까이 다가오는 공에 시선을 집중하니,  
모든 것이 느린 화면으로 움직이는 듯  
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치는 왜, 왜 소리뿐이었다.  
상대팀 선수는 슛을 할 것이 분명했다.

공에 몸을 세계 맞을 것 같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공은 내 손에 찰싹 맞고 튕겨 나갔다. 나는  
'좋아! 또 한 번



그때 나는 돌진해 오는 상대팀을 보려고 다시 경기장으로 눈을 돌렸다. 가슴이 뛰었다. 이미 꺼낸 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말이야.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 나를 아껴

당혹스러웠다. 마음속에 둔 특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만날 미래의 아내를 성전에 데리고 가려면 내가 합당해야 한다는 점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의 파티에 가지 않았던



공격이 보기 좋게 좌절됐군.’ 하고 생각하며 싱글거렸다. 나는 재빨리 공을 잡아서 우리 팀 쪽으로 던져 주었다. 그러고는 또 다른 상대팀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그래서?” 여자애가 물었다.

나는 여전히 흥미진진한 시합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파티에 안 가는 이유는 말이야.” 드디어 말을 꺼냈지만 생각을 하느라 잠시 멈추었다.

“그게 뭔데?” 여자애는 안달을 부리며 자꾸 물었다.

두려고 그러는 거야.” 무심결에 튀어 나온 말이었다.

“뭘!” 그 여자아이가 소리쳤다.

상대팀이 내 앞으로 몰려왔다. 나는 다시 경기에 집중했다. 공은 바람을 가르며 내 수비를 뚫고 들어가 버렸다. 상대팀에서는 환호성을 지르고 여자아이들은 깔깔거렸다.

“누군가를 위해 아껴 두는 거라고? 그래서 그 여자애 이름이 뭔데?” 킁킁거리며 그 애가 물었다.

것이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손은 여전히 얼얼하고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래도 입가에는 웃음이 드리워졌다. 그날 경기장에서 창피를 당했는지는 몰라도 내 발걸음은 힘찼다. ■

# 골목대장 호감 사기

결국 그 아이와 부딪쳐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더글러스 엠 브라운

**열**두 살이 되면 더 이상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게 된다. 어린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십대도 아닌 이 시기에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며 이를 알고자 몸부림친다. 내가 한창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부모님은 언덕 너머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간다는 통보를 하셨다. 겨우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었지만 내게는 세상이 통째로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인구가 3만 명인 도시 변두리에서 자랐다. 학교는 걸어서 다녔고 놀이터와 청소년 센터는 집에서 한 구획 떨어진 곳에 있었다. 매주 토요일에는 영화를 보러 갔다.

그러나 새로 이사한 마을은 달랐다. 인구가 6천 명 정도인 시골에다 향후 발전에 대한 계획도 없는 곳이었다. 학교는 2.4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다. 이제 가까이에 있는 언덕과 숲이 내 놀이터가 될 것이며 토요일마다 하던 영화 구경은 어쩌다가 누릴 수 있는 특별행사가 될 것이다.

이사 자체는 그리 끔찍한 일은 아니다. 나는 원래 모험심이 강하고 탐험을 즐겨워한다. 그러나 학교에 적응하는 일만은 힘이 들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잘도 어울리며 함께 지냈는데, 나 혼자서만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감정을 숨기지 못해서 쉽사리 골목대장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점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내가 상대해야 했던 가장 덩치 큰 골목대장은 트래시였다. 트래시가 여자애라는 것만 빼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 남자 골목대장들을 상대한 적은 있다. 그 아이들을 상대할 때에는 직접 대결을 하든지 아니면 피하는 법을 배우면 되었다. 그러나 트래시는 복도, 점심 먹는 곳, 교실까지 모든 곳에 존재하는 듯했다. 그 애는 사람을 산산조각낼 정도로 모욕을 주는 비결이 있었다. 나는 어디서든 그 아이와 마주치는 게 두려웠다.

그러나 트래시를 피할 방도는 없는 듯했다. 결국 트래시와 부딪쳐야 했는데 정말 어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들은 한 이야기가 상황을 역전시켰다. 누가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내용은 잊지 않고 있었다. 그 연사는 까다로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다. “상대를 때려 눕힐 수 없다면 죽도록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말에 회원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한동안 그것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44)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트래시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했다. “친절하게 대하여 그 애를 제압”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날, 나는 트래시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트래시를 만나서는 “트래시, 정말 근사해 보여.” 하고 말했다. 복도를 지나는 길이었는데 그 아이는 무척 놀란 모습이었고, 더듬거리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트래시를 볼 때마다 나는 뭔가를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칭찬을 했다. 더 이상 모욕은 없었고 내 인생에 작은 평화가 찾아왔다.

몇 달이 지난 후, 학기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학기말 활동 중 하나로 체육관에서 무도회가 열렸다. 나도 그 무도회에 갔지만 누구하고도 춤을 추고 싶지는 않았다. 솔직히 나는 여자아이에게 춤 신청을 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내게 와서 춤 신청을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 사람은 다름아닌 트래시였다.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나는 승낙을 하고, 함께 춤을 추러 나갔다. 노래가 끝나자 나는 트래시에게 “고마워” 하고 말했고, 그 아이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 이후로는 트래시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 여름에 어딘가로 이사를 갔던 것이다. 나는 트래시가 새로운 학교에서 나보다는 더 쉽게 적응하기를 바란다. 그날 나는 내 계획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적이 있는 곳에서 친구를 발견한 것이다. ■





# 어떻게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나요?  
다음 질문에 참/거짓으로 답하면서  
우정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1. 친구가 가장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  거짓
2. 즐거운 때에만 친구를 찾고 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함께하지 않는다.  
 참  거짓
3. 표준과 믿음, 간증을 나눈다.  
 참  거짓

## 좋은 친구를 사귈 거예요!

4. 친구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참  거짓
5. 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 때까지 마냥 기다린다.  
 참  거짓
6. 가까운 친구나 이미 알고 지내는 친구하고만 어울린다.  
 참  거짓
7. 조용하거나 수줍음을 타는 아이를 찾아가 친구가 된다.  
 참  거짓
8. 친구의 생각을 존중하기 위해 표준을 낮춘다.  
 참  거짓
9. 친구에게 관심을 보인다.  
 참  거짓



진정한 친구

“아론 신권 소유자인 우리는 과연 어떤 친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가 더 쉽게

지혜의 말씀이나 순결의 법과 같은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과 주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아론 신권: 명예로운 귀환” 성도의 빛, 1990년 5월호, 39쪽.

하나 더! 경전에는 우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아보세요.

야렛과 그의 형제는 서로 어떤 친구였나요? 이더서 1장 36절을 찾아보세요.

“친구는 사랑이 \_\_\_\_\_.”  
잠언 17장 17절에서 나머지 부분을 찾아보세요.

조셉 스미스의 친구는 어떻게 했나요? 교리와 성약 121편 9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참: 1. 참; 2. 거짓; 3. 참; 4. 참; 5. 거짓; 6. 거짓; 7. 참; 8. 참; 9. 거짓

위 사진 출처: 크리스티나 스미스 © M.D. ; 강기에 함께 서 있는 조셉과 하이럼 그림의 부분 확대, 데오도로 고카, © R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장로  
철심인

**제**가 침례와 확인을 받았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젠 너에게는 성신이 있단다. 네가 선지자에 대한 간증을 얻는 게 중요해.” 곧이어 저는 처음으로 연차 대회에 갔습니다. 1949년 10월 연차 대회였습니다.

참으로 진귀한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잠을 자고 토요일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와 함께 솔트레이크시티 중심가로 버스를 타고 갔던 일이 기억납니다. 템플 스퀘어로 걸어가 줄을 서서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태버나클에 들어가서 뒤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모임이 막 시작되려 할 때입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더니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지 앨버트 스미스(1870~1951)



## 선지자에 대한 간증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회장님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스미스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선지자를 보았을 때 들었던 느낌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로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주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 회장님을 볼 때에도 저는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세 분의 교회 회장님과 함께 하며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해 왔습니다.

여전히 회장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 속에서 “저분은 선지자야.” 하는 간증이 샘솟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회장님이 주님의 선지자라는 간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어리지는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간증을 얻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두셨고, 우리가 선지자의 가르침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일 때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

# 경건에 대한 교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저**는 대공황기에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아이들은 신발이 없어서 덧신을 신었고, 음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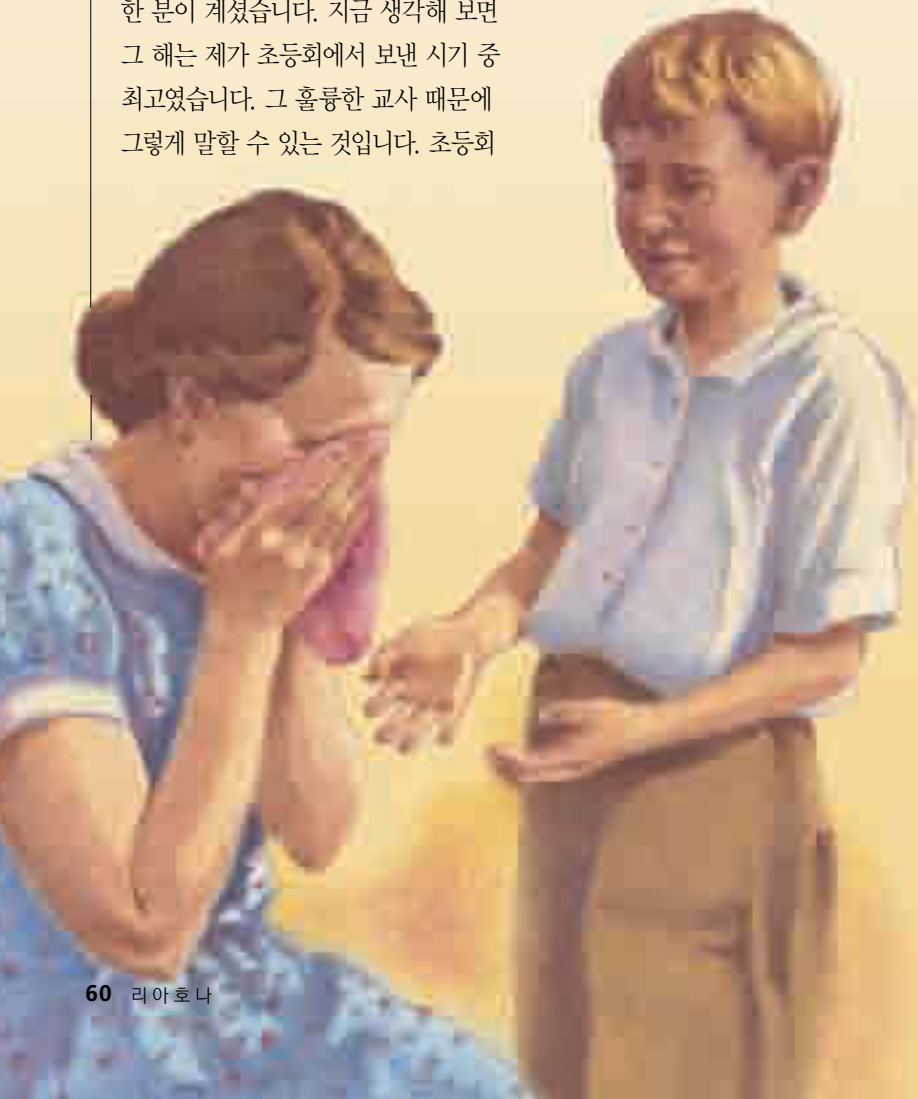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암울함 속에서 밝은 희망이 빛을 발하는 곳은 초등학교였습니다. 제가 열 살 때 우리 초등학교에는 훌륭한 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해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보낸 시기 중 최고였습니다. 그 훌륭한 교사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이 각별히 뛰어나서도 아니고 훌륭하게 행동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따금 들리는 남자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여자아이들의 수다는 초등학교 지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예배실을 나와 교실로 향하다가 우리 초등학교 회장이 예배실에 그대로 남아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분을 지켜보았습니다. 맨 앞줄 의자에 홀로 앉아 계시던



여러분도 경건해질 수 있어요!

**몬**슨 회장은 단 한 소년에 불과했지만 초등학교 전체가 더욱 경건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초등학교가 경건해지도록 여러분이 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적고 그대로 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 1.
- 2.
- 3.

그분은 손수건을 꺼내더니 훌쩍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로 가서 “조별 자매님, 울지 마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내 마음이 무척 슬프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솔길 건설자\*들을 통제할 수가 없구나. 네가 도와줄래?”

물론 저는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토미, 네가 그렇게 해 준다면 정말로 좋을 거야.”

당시에는 제가 그분을 울게 만든 아이들 중 한 명이었던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분은 제가 초등학교에서 경건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효과적으로 저에게서 협력을 얻어내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

\* 몬슨 회장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9~11세반 소년들은 오솔길 건설자로, 소녀들은 가정 건설자로 불렸습니다.

“Primary Days”, Ensign, 1994년 4월호, 65~68쪽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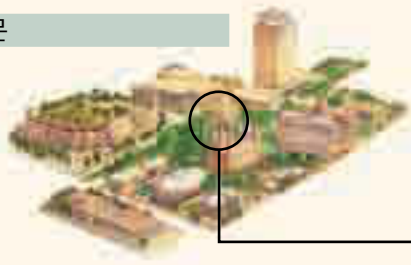
경건의 길

**경**건한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 그림이 있는 곳까지 가 보세요. 셸리가 경건한 자세를 하고 있는 그림을 찾고 거기 있는 화살표를 따라서 길을 찾아가세요. 경건하지 않은 셸리 그림에 있는 화살표는 따라가지 마세요.



상화: 달린 마너; 그림: 마너; 그림: 마너; 호프만, HARRISON CONROY CO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이번 달에는 우리와 함께 템플 스퀘어에 있는 중요한 장소를 보러 갈까요?



# 본부 초등학교 회장을 만나서



애나 컬프

**에**머 케이는 본부 초등학교 회장인 쉐럴 시 렌트 자매님을 만나보려고 유타 주 미드베일에서 왔습니다. 에머와 렌트 자매님은 상호부조회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초등학교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호부조회 건물에는 본부 초등학교와 청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이 조직들의 목적과 역사를 알려 주는 아름다운 전시물도 있습니다.

모습 말이에요.” 하고 렌트 자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떤 일을 더 자주 하기를 바라세요?” 하고 에머가 묻습니다.

“형제 자매들이나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면 좋겠어요.” 하고 렌트 자매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렌트 자매님은 어린이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림을 에머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 그림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고 렌트 자매님은 물으셨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 주어서요?” 에머가 말했습니다.

“교회 어린이들은 어떤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나요?” 에머가 물었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는 가장 훌륭한 일은 경전을 읽고 배우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에 우리는 아이들이 각자

자기 경전을 들고 초등학교에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경전을 펼쳐 읽으면서 주님께서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직접 배우는



렌트 자매님은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니파이인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 네 점을 에머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 온 천사들이 어린이들을 에워쌌습니다.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면 그분과 가까워지고 평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돼요.” 하고 렌트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진: 쉐럴 시 렌트, 본부 초등학교 건물 외부: 존 루크, 장식화 사진: 크레이그 다이먼드; 초등학교 본부 회장단 사진: © BUSATH.COM; 지도와 북그림 삽화: '물린 마유; 초등학교 짓 모방: LYNN FAUBETT; GORDOON COPE. © IRI



“맞아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제일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점 말이지요. 이 그림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모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요.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아이들을 나타내지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린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

렌트 자매님이 초등학교 어린이였을 때에는 이 장식띠를 찾다고 합니다. 목표를 완수하면 장식띠에 붙이는 기장을 받았습니니다. 오늘날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렌트 자매님은 에머에게 1878년에 조직된 첫 초등학교에는 2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있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백만 명이 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렌트 자매님의 사무실에는 델 파슨이 그린 그리스도와 전 세계의 어린이들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렌트 자매님과 보좌인 마거릿 에스 리퍼스 자매님과 비키 에프 마쭈모리 자매님은 이 그림을 즐겨 보십니다.



# 우리들 이야기



에이 엠, 11세, 미얀마



카일 브이, 6세, 필리핀



우리 가족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에게서 배울 수 있고 제가 배운 것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몬경에서 암몬이 라모나이 왕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늘 제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그 이야기를 항상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암몬처럼 용감하고 겸손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경전에 대해 배우고 싶고, 암몬처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침례주신 선교사처럼 강한 간증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 감사드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구스타보 에스, 11세, 코스타리카



케빈 에스, 8세,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에 사는 유자부로 아이는 네 살입니다. 유자부로는 다른 사람들을 흉내 내어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줍니다. 유자부로는 온갖 상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덴마크에 사는 세일린 에이는 아홉 살입니다. 세일린에게는 남동생이 두 명 있습니다. 세일린은 애완동물로 키우는 토끼 두 마리를 아주 좋아하고, 사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즐겁습니다. 또한 엄마와 함께 쿠키를 만들고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 리들 이야기에 그림, 사진, 경험, 간증, 또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면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란에 "Our Page"라고 써 주세요. 우편물로 보낼 때에는 다음 주소로 보내주세요.

*Liahona, Our Page*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원고를 보낼 때는 반드시 어린이의 이름과 나이, 사진, 부모님의 이름, 소속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나 지방부 명칭을 써 주시고, 제출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제출물은 분량을 조절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 신권 축복을 받은 린지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주가 이르노라.”(교리와 성약  
84:35)

머너 호이트  
실화에 근거함

**병** 원 대기실을 둘러보면서 린지는 마음이 초초해졌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대기실에 와서 자신을 수술실로 데려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린지의 침대 옆에 서 계셨습니다.

며칠 전에 린지의 가족은 특별한 가정의 밤을 했습니다. 엄마는 신권 축복에 대해 공과를 했고, 가족들은 돌아가며 각자 신권 권능으로 병자 축복을 받았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린지는 가족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평안한 느낌은 바로 린지가 들은 말들이 참되다는 사실을 성신이 알려 주는 것이라고 엄마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공과가 끝날 즈음,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인 린지의 오빠는 성별된 기쁨을 동생의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린지에게 훌륭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린지를 알고 계시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수술을 잘 해내어 수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린지가 두려움 대신 평안과 위안이라는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따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린지는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면서 용감해지려 노력했지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은 어찌지 못했습니다. 병원복을 입은 남자 두 명이 린지가 있는 대기실로 들어와서는 수술할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들은 린지가 힘을 내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 주었지만 그래도 린지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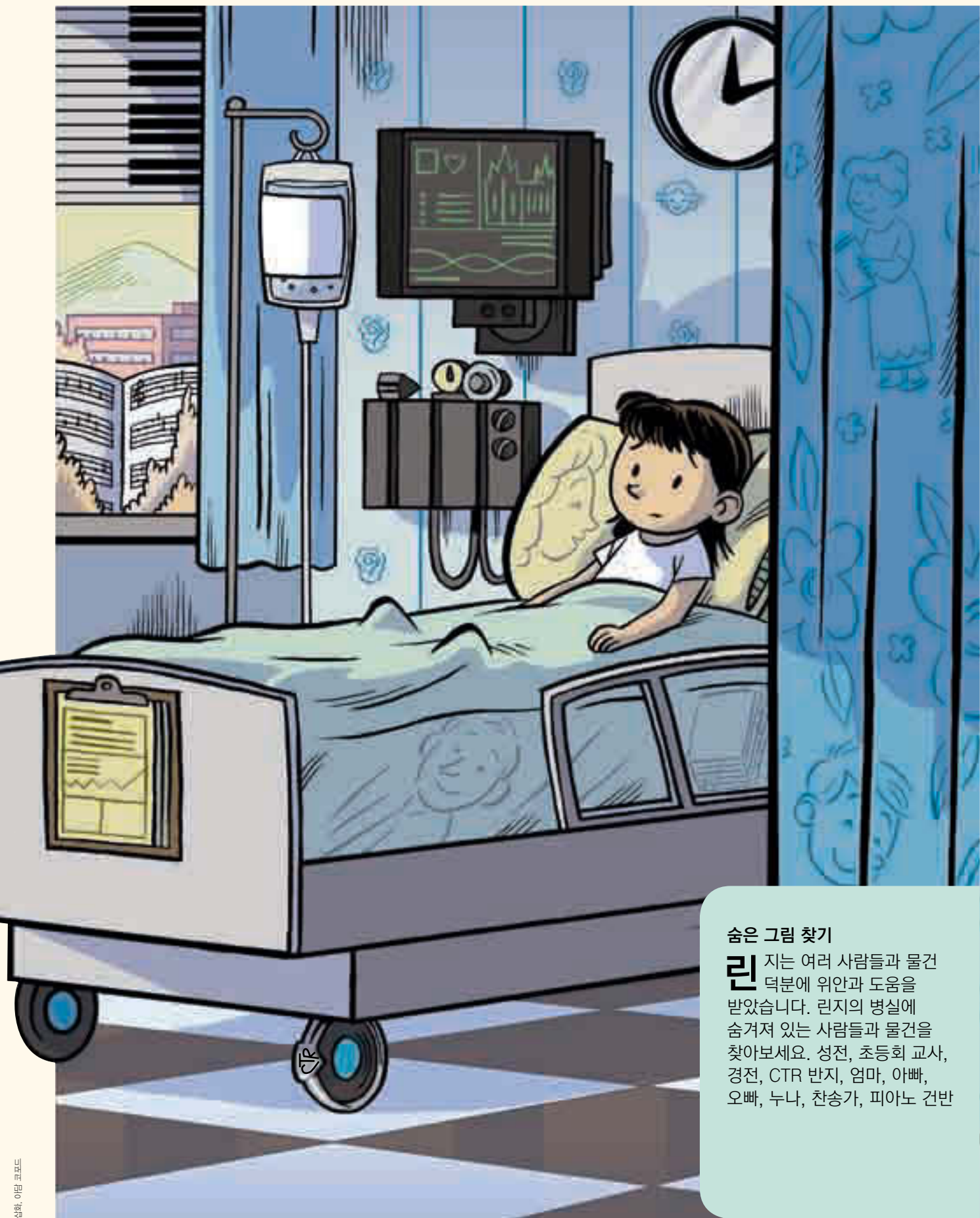
린지는 침상에서 엄마와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그 후 한 남자가 통로를 통과해 지나갈 때 린지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손잡이를 끌어 올렸습니다. 린지는 그 남자가 무얼 하는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남자의 손가락에서 친숙한 은빛 반지를 보았습니다. 반지에 새겨진 CTR(옳은 것을 선택하라) 문구를 보자 마음이 따뜻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린지는 얼굴에 웃음을 띠었습니다. 린지는 모든 게 잘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병** 고침의 축복은 ..... 각 개인의 필요 사항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멜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무거운 짐 진 자들을 고치심”,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7쪽.



### 숨은 그림 찾기

**린** 지는 여러 사람들과 물건 덕분에 위안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린지의 병실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과 물건을 찾아보세요. 성전, 초등회 교사, 경전, CTR 반지, 엄마, 아빠, 오빠, 누나, 찬송가, 피아노 건반

#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샌드라 태너와 크리스티나 프랜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축복을 받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지시를 따르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몬슨 회장님께서 전하신 말씀 중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의 세상적인 어려움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며 그분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sup>1</sup>

또한 몬슨 회장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에[십니다.] …… 그분은 …… 우리를 사랑하[시며] ……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sup>2</sup>

그리고 **가족을 돕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친절과 사랑을 실천합시다.”<sup>3</sup>

또한 이 세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배웁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원뿐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정을 표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선한 국민이 되고 우리 사회의 선한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sup>4</sup>

## 2010년 3월 경전 일지

신약전서에서 누가복음 1장 70절을 읽는다.

이 구절을 이해하고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며 도움을 구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오늘날의 선지자이심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 구절을 암기한다.

다음 활동 중 하나를 하거나 여러분이 준비한 활동을 한다.

- 69쪽에 있는 활동을 한다. 점선을 칼로 긋는다. 그리고 선을 따라서 경전 구절을 잘라내고 그 구절을 선지자 그림 밑에 끼워 넣어 구절과 그림이 짝을 이루게 한다. 해당 경전 구절을 보고 선지자의 이름을 찾는다. 그림 밑에 있는 빈칸에 선지자의 이름을 적는다.

- 69쪽에 있는 선지자들의 그림을 본다. 가족과 함께 이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 다음 인용문 또는 선지자가 가르친 다른 내용을 읽는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아 ……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십시오.”<sup>5</sup>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기도하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매일 밤, 그리고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sup>6</sup>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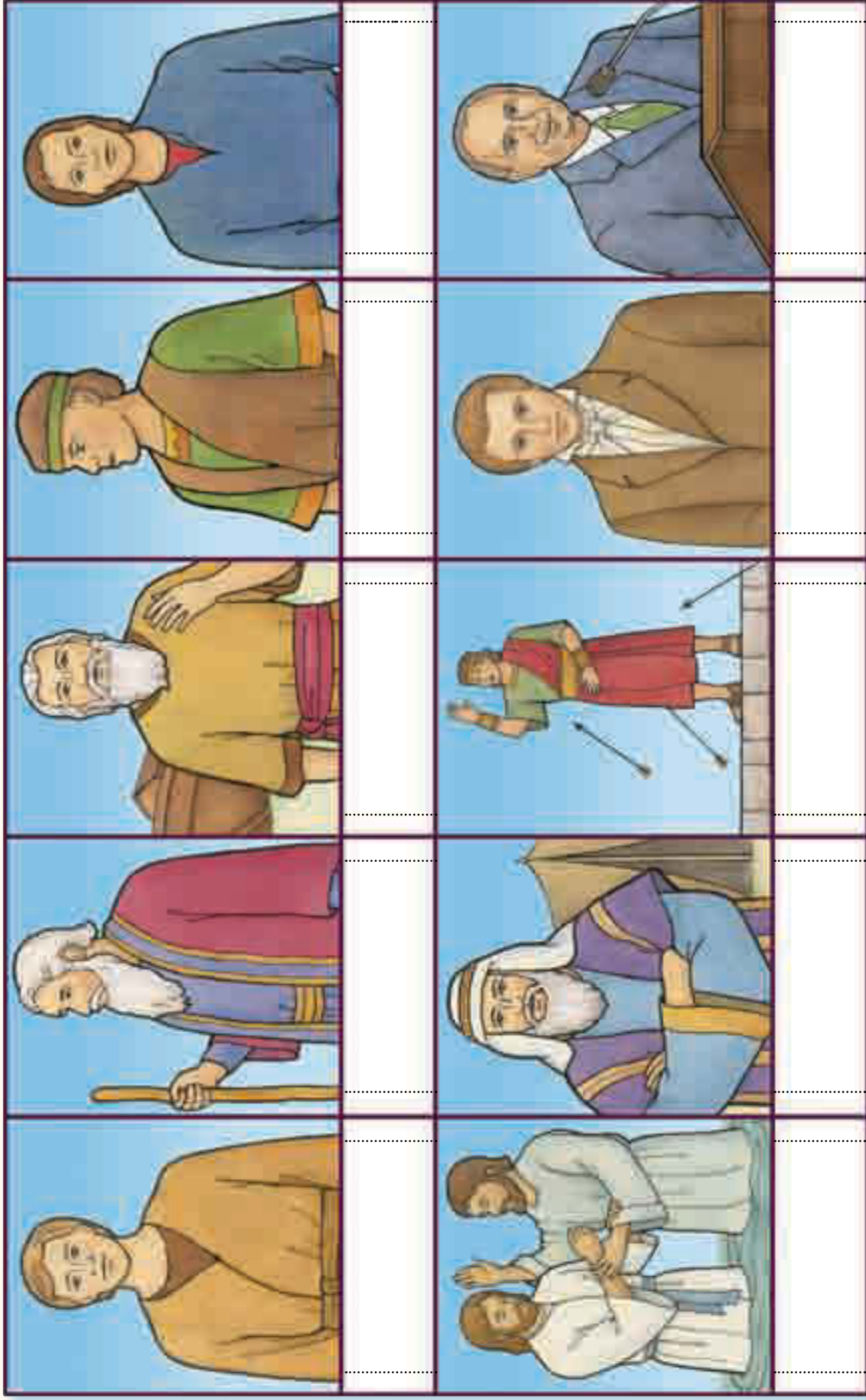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문경을 읽고, 주의 깊게 그 내용을 공부하며, 몰문경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sup>7</sup>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

이런 활동을 해 보면서 누가복음 1장 70절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여러분이 한 활동을 일지에 기록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한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06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감”,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0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0쪽.
4. 토마스 에스 몬슨,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06쪽.
5. 토마스 에스 몬슨, 케리 야방 기사, “Prophet’s Birthday: Milestone of 81”, *Church News*, 2008년 8월 23일, 4면.
6. 고든 비 헝클리, “Don’t Ever Forget to Pray” *Friend*, 2006년 4월호, 11쪽.
7. 스펜서 더블류 김볼, *How Rare a Possession—the Scriptures! Ensign*, 1976년 9월호, 5쪽.



모세서 1:34

출애굽기 3:2~4

창세기 7:1

다니엘 6:22~23

니파이전서 2:1~3

마태복음 3:1~2

모사이아서 18:7

힐라맨서 16:2~3

교리와 성약 1:17

교리와 성약 1:38

# 미구엘의 새로운 초등학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에베소서 2:19)

라라 피 더핀  
실화에 근거

1. 미구엘이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하고 나서 처음 맞는 일요일이었습니다. 미구엘은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미구엘은 이날 새로운 초등학교 반에 들어갔습니다.



2. 교실 문 앞에서 미구엘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분은 우리 선생님이 아니에요. 도밍구에즈 자매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3. 엄마는 무릎을 굽혀 앉아 미구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는 거고, 새 친구들도 만날 거야.”

4. “새 선생님은 싫어요. 옛날 집으로 가서 옛날 선생님과 지내고 싶어요.” 하고 미구엘은 말했습니다.

5.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똑같은 것도 있을 걸. 여기서도 초등학교 노래를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을 거란다.”

7. 그제야 미구엘은 엄마 손을 놓고 새로운 초등학교 반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8.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대요. 새로운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6. “정말이에요? 그것 말고도 또 뭐가 똑같은데요?” 미구엘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초등학교 선생님도 도밍구에즈 자매님처럼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실 거야.”

## 똑같은 부분 찾아내기

채드 이 파레스

교회 잡지

**미** 구엘은 새로운 초등학교 교실에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전 초등학교 교실과 위쪽에 있는 새 초등학교 교실을 비교해 보세요. 양쪽 초등학교 교실에서 똑같은 부분을 찾아 동그라미를 치세요. ■



사진: 크레이그 스타이플리

# 의심하지 않아요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청**년 용사들은 어려운 일을 해내야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엘마서 56장 47~48절을 읽으면서 이 청년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 점들을 연결하고 그림을 색칠하세요. ■

## 부모에게 전하는 제언

1. 엘마서 56장에 기록된 청년 용사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준다.
2. 어머니들은 청년 용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점을 설명한다.
3.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는 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지 물어본다.(힌트: 아래 그림에서 청년 용사와 그의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상하: 베스 앤 워터키

## 물몬경, 180년에 걸쳐 약 1억 5천만 권이 출판되다

라이언 쿤즈  
교회 잡지

**3월**에 맞는 물몬경 출판 18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 거룩한 경전을 1억 5천 번째로 출판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전망이다.

1830년 3월 26일에 최초로 출판된 물몬경은 이 비그랜던 서점 선반에 진열되었으며, 초판은 모두 5천 권이 인쇄되었고, 1830년부터 1987년까지 3천 9백만 권 이상이 출판되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1988년에 이렇게 말씀했다. “물몬경으로 지상이 차고 넘치기에 너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은 지상이 물몬경으로 차고 넘침”,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4쪽)

물몬경은 1990년까지 5천만 권이 출판되었다. 이 책들은 회원들과 선교사들의 손으로 세상에 전해졌다. 이후 2000년까지 출판 부수가 두 배로 증가했으며, 그 사이 10년 동안 평균 7초에 한 권 꼴로 인쇄되었다는 속도를 감안한다면 2010년 말까지는 교회가 예상하는 대로 1억 5천만 권 출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강력한 영향력

물몬경으로 지상이 채워진다는 벤슨 회장의 말씀은 바로 이 책의 영향력에 근거를 둔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초기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History of the Church, 4:461)이라고 가르쳤다.

그 이후로 물몬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2003년에 북(Book) 잡지는 물몬경을 토마스 페인의 상식 및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와 함께 “미국을 변화시킨 책 20권” 중 하나로 지정했다.

2005년 8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물몬경을 읽는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더욱 충만히 주님의 영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가슴 설레는 간증”, *리아호나*, 2005년 8월호, 6쪽)입니다.

또한 힝클리 회장은 2007년 10월에 물몬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여러 해 동안 비평가들은 물몬경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물몬경에 반대하는 말을 하고 조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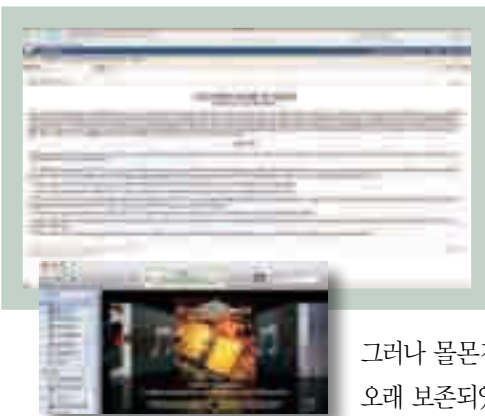
그러나 물몬경은 그들 모두보다 오래 보존되었으며, 오늘날 물몬경의 영향력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산에서 뜨인 돌*,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83쪽)

### 번역 사업

물몬경이 지상에 차고 넘쳐나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는 여러 언어 덕분에이기도 하다.

물몬경 전문이 82개 언어로 출판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출판된 것도 25개 언어에 이른다. 영어 물몬경 이후에 첫 판은 1851년에 출판된 덴마크어 물몬경이었으며, 1852년에는 독일어, 웨일스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물몬경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현재 진행 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번역이 완성된 언어로는 파라과이에서



인쇄본에 더하여  
물몬경은 복합  
디지털 형태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 촬영: 빌 와이어 제공

## 라이베리아의 청년들, 개인 발전에 대해 배우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청년들은 2009년 8월에 열린 지방부 특별 청년 대회 동안 지구 반대 편에 있는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거룩한 본질과 청년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가르쳤다.

시에라 레온 프리타운 선교부 지역 몬로비아 라이베리아 부쉬로드 아일랜드 지방부 청년들을 위한 훈련과 준비는 3개월 앞서 시작되었다. 대회 주제는 “오늘의 공주, 영원한 왕비”였다. 지방부 각 지부에서는 하나님의 딸이 어떻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에 대해 강조하는 가운데 한 가지 가치관에 대한 워크숍을 발표하고 또 다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짧은 연극을 만들도록 책임을 맡았다.

벨린더 와이어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청년들은 아프리카의 미래이며, 그들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개척자들입니다.” 그녀는 남편인 빌 와이어 장로와 함께 대회에 참가한 전임 선교사다.

워크숍과 짧은 연극, 그 밖의 활동들을 한 후에 대회 관계자들은 다른 나라 청년들이 복음과 개인 발전에 대한 간증을 담아 보낸 편지들을 전했다.

와이어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온 세계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편지를 손에 든 이 어린 자매들은 그 청년들도 자신과 같은 것을 믿고,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따르고, 똑같은 선지자의 인도를 받으며,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

*라이베리아 청년들과 지도자들이 개인 발전을 위한 특별 지방부 청년 대회에 함께 모였다.*

## 갈라파고스의 성도들, 신앙으로 보상 받다

**수**는 적지만, 갈라파고스 섬 성도들의 신앙은 강하다. 태평양 에콰도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섬의 회원들은 지난 9월에 이 섬에서 첫 번째 집회소가 완공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회원들은 갈라파고스 아일랜드 지부가 예전에 예배를 보던 임대 건물을 “카스틸로 블랑코”라 불렀는데, 어떠한 방도 성찬 모임을 할 만큼 넓지 않았으므로 회원들은 세 방에서 동시에 모임을 진행해야 했다.

이 섬에서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는 플로이드 바움 장로와 수잔 바움 자매는 새로운 건물에 첫 발을 디디며 겸손해진 마음에서 눈물을 지었다. 바움 장로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진 건물입니다.” 하고 말했다.

에머 배스티다스는 1985년에 침례를 받기 위해 가족과 함께 에콰도르 본토로 여행했던 때를 떠올렸다. 에머와 가족들은 지부가 조직되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녀는 이 섬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도착했을 때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제가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하고 배스티다스 자매가 말했다.

작은 무리의 성도들을 위해 집회소가 마련되었다는 것 외에도 새 예배당은 다른 축복들을 가져다주었다. 레오노어 마추어는 에콰도르 과야퀼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새로운 집회소에 대해 들었다. 에콰도르에 있는 동안 그녀는 새로운 건물과 그 종교에 대해 어떤 사람에게 물었다. 그 낯선 사람은 그녀의 질문에 답해 주었고 그녀에게 집에 돌아가면 선교사를 만나 보라고 제안했다. 며칠 후, 그녀는 길 모퉁이에 있는 선교사들을 보았고, 토론 권유를 받아들였다. 마추어 자매는 2009년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 직후에 침례를 받았는데, 이로써 새 집회소 침례당에서 침례를 받은 첫 번째 회원이 되었다.

## 메사를 비롯하여 연례 패전트가 시작되다

섬에서는 교회가 비교적 새롭다. 지부가 공식적으로 조직되기 전에는 네 가족이 산타 크루즈 섬의 푸에르토 아요라 마을에서 모임을 시작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1998년에 과야킬 에콰도르 남 선교부 내에 지부를 조직했으며, 회원들이 카스틸로 블랑코로 이사하기 전에는 산 크리스토틀 섬에서 모임을 시작했다.

현재 약 120명의 회원들이 매주 산타 크루즈 섬에 지어진 새로운 집회소에 참석하고 있다.

비록 지부가 작고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갈라파고스 섬 성도들은 축복을 받았다고 다니엘 칼라푸차 지부 회장은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정 외롭지 않습니다.” ■

## 콜롬비아 어린이들, 성전을 방문하다

**콜**롬비아 소차 스테이크 푸사가수가 와드의 열두 명이 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콜롬비아 보고타 성전에서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면서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2009년 11월, 와드 초등학교 회장단은 초등학교 어린이 열다섯 명과 함께 성전을 찾았다. 그곳에서 어린이들은 조지 제이 에스코바 성전 회장을 만나 대화할 기회를 맞았는데, 어린이들은 그 시간 동안 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사업을 하기 위해 열두 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성전 침탑의 모로나이 상이 나팔을 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천사가 보통 동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활동이 끝날 무렵, 어린이들은 그날 느낀 점을 서로 나누었다.

와드 초등학교 서기인 마리아 퍼넨더 산체스 자매는 그 활동이 영적인 경험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날은 그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지도자인 우리에게도 특별하고 있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

**교**회는 매년 미국 전역에 걸쳐 다섯 개의 패전트를 후원한다. 각 패전트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알린다.

### 메사 패전트

메사 패전트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탄생, 성역, 비이기적인 죽음과 기적적인 부활을 다룬다. 공연은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계속된다. 자세한 정보는 [www.easterpageant.org](http://www.easterpageant.org)를 참조한다.

### 맨타이 패전트

맨타이에서 선보일 물론 기적 패전트는 복음의 회복, 물론경의 증인, 샌피트 계곡으로 가는 충실한 개척자들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공연은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계속된다. 자세한 정보는 [www.mormonmiracle.org](http://www.mormonmiracle.org)를 참조한다.

### 나부 패전트

나부 패전트인 조셉 스미스에 대한 찬사는 회복된 복음, 조셉 스미스의 예언적 사명과 나부의 초기 후기 성도들의 유산을 기린다. 공연은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자세한 정보는 [www.nauvoopageant.org](http://www.nauvoopageant.org)를 참조한다.

### 쿠모라 패전트

쿠모라 패전트인 그리스도에 대한 미국의 증인은 리하이 가족과 그 후손들의 시련, 예수 그리스도가 절정의 시기에 미대륙을 방문하신 일과 조셉 스미스가 금판을 발견한 것을 포함한 물론경 이야기를 들려준다. 공연 일자는 7월



사진: 물론 스미스, DESERET NEWS

9일부터 17일까지다. 자세한 정보는 [www.hillcumorah.org](http://www.hillcumorah.org)를 참조한다.

### 캐슬 밸리 패전트

캐슬 밸리 패전트는 유타 주 캐슬 대일의 개척자 마을에 정착하는 이야기를 그린 정교한 야외 역사 드라마다. 공연 일자는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다. 자세한 정보는 1-435-687-2403으로 전화하여 문의한다. 캐슬 밸리 패전트는 유타 주 클락스톤에서 열리는 클락스톤 패전트의 마틴 해리스:알고 있던 자와 격년으로 공연한다. ■

# 음악 및 문화 예술작 출품 공고

**교**회 출판 또는 공연을 위한 올해의 음악 및 연극 작품 출품 마감 기일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다. 출품 마감은 2010년 3월 30일이다.

선정된 음악은 Church Music Festival에서 공연되며 선정된 원고와 시는 Cultural Arts Submission Presentation에 전해진다. 때로는 교회 웹사이트나 교회 잡지에 실리기 위해 선정되는 작품도 있다. 음악 출품작에는

노래, 어린이 노래, 찬송가, 성가, 찬송가 편곡, 그리고 기악 및 기타 작품이 포함된다.

문화 예술 출품작은 드라마, 코미디 및 뮤지컬을 포함한 연극 대본이었지만 공연 가치가 있는 시와 오라토리오도 출품 가능하다.

출품된 작품은 각 교회 단위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고 고무적인 방법으로 복음 원리를 가르치기에 적합해야 하며, 교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정확해야 한다. 출품은 어떤 언어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 및 문화 예술작 출품에 대한 유의 사항은 801-240-6492로 전화 문의한다. ■

## 음악 작품 출품

음악 작품 출품을 위한 안내는 [www.lds.org/churchmusic](http://www.lds.org/churchmusic)에서 찾을 수 있다. Music을 클릭한 다음, Other Music을 클릭한 후, Church Music Submissions를 클릭하거나, 1-801-240-6439로 전화하여 문의한다.

## 문화 예술작 출품

문화 예술 출품작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레터 용지(22 x 28 cm)에 인쇄된 원고 및 해당 음악 2부.
2. 모든 기고자의 서명을 포함한 다음 내용의 서약서: “출품작 ‘\_\_\_\_\_’은 자신의 원작이며, 제 소유로서 제출 규정을 준수합니다.”
3. 작품 제목, 작가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중심 주제, 개요, 배역 요건을 적은 소개서.

소개서, 원고, 서약서에는 모든 기고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한다. 교회는 위원회에서 수락한 작품의 작가에게 무제한 사용을 위해 비독점적이고 영구적인 허가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 문화 예술 출품작 보내는 곳:

Church Theatrical Script Cultural Arts Submission  
50 E. North Temple St. Rm. 2082  
Salt Lake City, Utah, 84150-6070, USA.

## 애독자 편지

### 성공의 열쇠

“사탕무, 그리고 영혼의 가치”(토마스 에스 몬슨, 2009년 7월호, 2쪽) 기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기사를 제 개인 공부 시간에 사용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알지만, 선교 사업은 재미도 있고 보상으로 따릅니다. 저는 사람들이 침례의 물가로 들어가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고무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리아호나에서 배운 것들은 제가 더욱 훌륭한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라몬 크리스토퍼 에이치 빌라로나 장로, 필리핀 나가 선교부

### 어렵듯이 본 영원한 행복

리아호나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굳건히 남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리아호나는 제 간증을 강화시켜 주며 제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리아호나가 주는 가르침은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렵듯이나마 보게 해 줍니다.

줄리아 마리아 어저베도, 브라질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안 사항을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 세계 단신

### 교회의 공익 광고, 표창 받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광고 마케팅 회사가 교회에서 제작한 공익 광고에 표창을 수여했다. 전국 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부성애의 중요성을 다룬 단편 “Swashbucklers”(허세부리는 사람)이 그 내용의 적절성과 높은 작품성, 재미, 유머, 온정을 탁월하게 조합한 점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공익 광고는 Homefront(가정) 시리즈의 일부분으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물론 메시지 [www.youtube.com/mormonmessages](http://www.youtube.com/mormonmessages)에서 볼 수



있다. “Swashbucklers”(허세부리는 사람)을 검색한다.

### 자폐증 위원회, 교회 장애인

#### 웹사이트에 표창

유타 주 자폐증 위원회는 2009년 10월 14일, 교회의 장애인 자원 웹사이트를 높이 평가하며

올해의 최우수 단체상을 교회에 수여했다. 이 사이트는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언어 장애, 학습 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가족 및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사이트는 [www.disabilities.lds.org](http://www.disabilities.lds.org)에서 접속할 수 있다.

### 워싱턴, 노래로 하나 되다

2009년, 미국 워싱턴 주 레드몬드에서는 후기 성도를 포함한 여섯 개 종파 신도 170명 이상의 목소리가 “세계 교회 음악 모음—노래와 찬양의 한

목소리”라는 공연에서 울려 퍼졌다. 주드 가톨릭 성당이 주최하고 영국 성공회,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신도들이 참가한 이 공연은 모든 이웃 교회와 지역 사회가

지역 노숙자 캠프인 Tent City 4를 후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열렸다. ■

##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금식의 법**”, 26쪽: 다음 금식일을 위한 가족 계획을 짜는 것을 고려해 본다. 언제 금식을 시작하고 끝내는 기도를 할지 결정한다. 무엇을 위해 금식할지, 그리고 금식 중에 자신의 간증을 나눌 때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토론한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금식을 할 수 없다면 금식에 참여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육신의 팔에 기대지 마십시오**”, 40쪽: 가족에게 그들이나 다른 가족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권유한다.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한 가지 목표를 정하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의 노력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어린 자녀에게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려 보게 한다. 그런 뒤, 부모나 큰 자녀들이 돕게 한다. 어떤 경우가 더 쉬운가? 왜 그런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만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쿠파카에 걸려 들다**”, 48쪽: 가족이 함께, 갖고 싶은 어떤 것이 들어 있는 여러분만의 쿠파카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본다. 그런 다음, 역할극에서 번갈아가며 “원숭이” 역을 맡아 본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덮에 걸려들게 하는지, 어떻게 그 덮을 피할 수 있는지, 또 덮에 걸려들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신권 축복을 받은 린지**”, 66쪽: 신권 축복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가족이 신권 축복을 받은 경험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신권 축복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여러분은 왜 신권에 대해 감사하는가? ■

#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며

안토니오 펠루소

그 날은 일요일이었다. 나는 가족과 함께 새로 개조한 우리 지역의 집회소 헌납식에 참석했다. 성찬 모임이 시작되기 불과 몇 분 전, 스테이크 회장님은 3킬로미터 떨어진 우리 와드 건물로 가서 어떤 물건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셨다. 그곳에 다녀올 시간은 충분했다. 이 간단한 심부름을 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감동스러운 일을 경험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 멋진 경험이었다.

집회소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몇 구획만 더 가면 집회소에 도착할 즈음이었다. 나는 내 앞에서 달리는 자전거 두 대를 보았다. 큰 자전거와 아주 작은 자전거가 매우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들을 한 눈에 알아보았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우리 와드의 훌륭한 형제님과 그의 어린 아들이었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가는 중이었다. 일요일마다 그들은 자전거로 교회에 왔다.

그들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 소년과 아버지가 나중에 이 자전거 타고 가던 때를 추억할 모습이 머리에 그려졌다. ‘아버지가 보여 주는 모범은 얼마나 훌륭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영원한가. 소년은 이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성장하고, 자신이 아버지가 되면 아마 똑같이 아들과 자전거를 타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을 따라잡으려 걸음을 재촉할 때 아버지와 함께한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자전거 핸들 위에 나를 앉히곤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 그 일은 내게 기쁨이자 따스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교회에 도착한 나는 자전거를 타고 온 두 사람에게 방긋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마찬가지로 내게 인사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나는 그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자전거 두 대가 지나가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일요일에 나는 그 단순한 장면을 보면서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일을 얼마나 행복하게 여기는지 볼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신권회 시간에 집회소로 오면서 본 의로운 아버지의 상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그 형제님에게 말할 기회가 생겼다. 내 말을 들은 그 형제님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쩌면 내가 말한 것이 그 형제님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 놀랐는지도 모르겠다.

후기 성도들은 이 형제님과 같이 자녀의 영적인 복지와 정서적 복지를 돌보는 수많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그러한 부모를 축복받은 자녀인 우리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그들의 모범과 희생에 대해 가슴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느낀다. ■



변함 없는 진로, 존 힐라맨 샐라인  
은빛 단풍 나무로 조각

이 작품의 공예가는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 작품에는 리하이의 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쇠막대를 잡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고 아니면 쇠막대를 놓고 미지의 여정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니파이전서 8장 참조) 제8회 국제 미술 대회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려면, 30쪽의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기억하며”를 보도록 한다.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폭도의 습격을 받는 선지자 조셉, 샘 로올러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한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므로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심히 즐거워할 것임이라. 이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그들이 이같이 핍박하였음이니라.”(제3니파이 12:10~12)